

한국의 집단주의에 관한 동기-자아개념-행동 모형의 검증¹⁾

안 신 호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이타행동, 집단간 차별에서의 내집단 편애, 개인주의-집단주의에서의 집단주의의 세 사회행동 영역을 “사회적 동기-자아확장-행동”의 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우리 나라의 집단주의에 이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아확장이란 자신의 정의 속에 타인을 포함시킴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욕구, 자존감 증진/유지 욕구, 착한 사람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후 無化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등이 우리 나라의 집단주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 적절한 것으로서 채택되었다. 노인 집단(146명)과 부산대, 인제대, 경상대생이 조사에 참가하였다. 세 대학생 집단(815명)은 도시화의 정도를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자아확장 척도(Aron 등 1991의 IOS Scale), 동기 척도(사회적 지지 기대, 동일시 정도, Conte 등 1982의 죽음불안척도), 집단주의 행동경향성 척도(자기 희생, 내집단 편애 등)가 실시되었다. 먼-친척지표(오촌 이상의 먼 친척에 대한 집단주의적 성향)와 차이지표(가족지표에서 먼-친척지표를 뺀 수치)를 분석하였다. 먼-친척지표가 높을수록, 그리고 차이지표가 낮을수록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아주 강하였다. 노인 남성 집단의 집단주의 성향이 특히 강하였으며, 경상대 남학생 역시 부산대 및 인제대 남학생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공변량 구조 분석 결과, “자아확장→동기→행동,” “자아확장←동기→행동,” “자아확장←동기←행동”의 세 동치모형이 자료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형들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과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타인(들) 혹은 집단을 위해 행하여지는 여러 행동유형 예컨대, 이타행동(altruistic behavior), 집단간 차별(intergroup discrimination)에서의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 그리고 집단

주의-개인주의(collectivism-individualism)의 집단주의 행동경향성을 “사회적 동기-자아확장-행동”의 단일한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들의 하나인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

1) 이 논문은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양 교수님과 이유갑, 장형석 선생, 그리고 자료 처리의 잔일을 맡아 준 빈성혜, 박미영, 이선화 양에게 사의를 표한다. 특히, 공변량 구조분석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 김석우 교수님, 이순목 교수님, 정용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통계분석이나 결과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본 연구자의 책임이다. 또한 원고의 수정을 위하여 적절한 지적을 하여 주신 세 익명의 평자에게도 감사드린다.

에 이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타행동,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 그리고 내집단 편애 등의 행동들은, 때로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들) 혹은 집단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신을 희생한다는 현상은 개체 보존이라는 유기체의 절대적인 욕구와 모순되는, 그러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신비스러운 현상이다. 협동이 유리한 경우이거나, 호혜적(reciprocal) 이타행동의 경우처럼 타인을 돕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더 큰 이익에 기여하리라는 것이 합리적 판단의 결과로서 추론되는 잠정적인 자기희생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희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소집단간 상황(minimal intergroup situation)에서의 내집단 편애 현상이나, 막연한 내집단(혹은 불특정 내집단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른바 집단주의 경향성, 그리고 앞으로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없는 낯선 사람에 대한 희생으로 정의되는 순수한 의미의 이타행동은 개체 보존을 위한 유기체의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본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체 보존을 위한 욕구 이외의 다른 사회적 욕구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들 행동에서의 표면적인 실질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정신적 이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득은 모종의 사회적 욕구의 충족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행동의 원인을 사회적 규범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상불, 이타행동의 초기 이론 중에(Berkowitz, 1972), 그리고 최소집단간 상황에서의 내집단 편애 현상을 처음 발견한 당시의 Tajfel(1970)도, 각기 규범으로 그 현상들을 설명하려 하였으며, 집단주의에 관한 현 단계의 유력한 설명도 규범에 의존하고 있다(Heine & Lehman, 1997). 그러나 사회적 규범은 그것이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모종의 동기 만족을 줌으로써 시작되었고 또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규범수준의 설명은 심리학적 설명으로는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동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 이외의 타인(들) 혹은 집단을 위한 행동이라는 데 있으며, 개인이 타

인(들) 혹은 집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모종의 동기만족을 얻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 행동 영역에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러한 공통점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세 행동 영역은 각기 별도의 이론적 틀 속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타행동과 내집단 편애에 기저하는 것으로서 각기 다른 동기가 상정되었고, 집단주의적 행동에 대하여서는 기저하는 동기에 대한 관심 없이 미국과 극동 국가 사람들간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영역의 행동이 “자아확장”이라는 공통된 매개과정에 의한다는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아확장은 타인이나 집단을 자신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로서 자신의 정의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확장이라는 과정은 몇 가지의 사회적 동기로부터 기인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먼저, 이타행동,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 그리고 내집단 편애의 세 가지 행동 영역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모델을 소개하기로 한다.

동기 - 자아개념 - 행동 모형의 이론적 배경 및 내용

집단간 차별

본 연구에서 제안할 이론모형이 설명하고자 하는 행동들 중에서 집단간 차별, 즉 내집단 편애 및 외집단 차별에 관한 연구가 가장 연구의 역사가 깊고, 연구량도 많으며 이론적 체계성에 있어서도 다른 두 영역보다 앞서는 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론틀에도 가장 잘 부합된다. 미국에서는 인종문제에 관련된 실사회 문제의 이해 및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른바 지역감정이라는 사회문제와 결부되어 많은 연구와 이론들이 있었으나(안신호, 1988; Allport, 1954), 가장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Tajfel(1970)에서 비롯된 사회적 정체감(social identity) 이론일 것 같다. Tajfel과 Turner를 위시한 사회적 정체감 이론가들(Oakes & Turner, 1980; Tajfel, 1981, 1982; Tajfel & Turner, 1979, 1986; Turner, 1975,

1982), 그리고 Crocker와 Luhtanen(1990)에 따르면, 표출행동으로서의 집단간 차별은 내집단과 관련된 사회적 정체감 형성에 의한 것이며 사회적 정체감은 또한 그 개인의 자존심 고양(Adler(1930) 식으로 표현하면 열등감의 해소/우월감의 획득)이라는 기저동기에 기인한다(안신호, 1988 참조). Turner(1975; Oakes & Turner, 1980; Turner, Brown, & Tajfel, 1979)는 내집단 편애라는 행동이 자존심의 욕구에 기인함을 경험적으로 밝혔다(안신호, 1988 참조). 즉 동기와 행동요인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얻은 연구단계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정체감'은 가설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론적 모형은 사회적 정체감 이론이 갖고 있는 인과적 단계모형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정체감 이론이 기저동기로서 자존감만을 상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이론모형에서는 자존감 이외에 소속(belongingness) 및 사회적 지원(social or interpersonal support)의 욕구 등 다른 사회적 욕구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소집단간 상황이라는 실험절차를 통하여 만들어진 인위적인 내외집단의 경우에는 자존감 이외의 다른 욕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인간의 실제의 삶 속에서의 내집단 편애 현상에 있어서는 소속 및 사회적 지원 등의 사회적 욕구가 기여하는 정도도 무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이타행동

Darley와 Latane(1968)의 이른바 목격자 효과에서 비롯된 이타행동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사회심리학자들의 가장 집중적 관심 영역 중 하나이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어떤 주변 여건 하에서, 혹은 어떤 심리상태 속에서 만나게 되는가를 주요 독립변인으로 한 연구들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상황변인 효과 차원의 연구를 넘어서 이타행동의 동기를 밝히려 한 Batson(예컨대, Batson, Duncan, Ackerman, Buckley, & Birch, 1981; Coke, Batson, & McDavis, 1978; Toi & Batson, 1982)은 도

움행동을 이기적 동기에 의한 도움행동과 이타적 동기에 의한 도움행동으로 나누어,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공감(empathy)을 느껴 행하게 되는 도움행동은 이타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였다(안신호, 1983, 1986 참조).

심리학에서 동기는, 내재적 동기(Deci, 1975; Deci & Ryan, 1985)와 같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주로 자기 자신의 보존이나 쾌락(혹은, 학자에 따라, 심리적 긴장의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만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 개념으로는 이타행동을 설명하기가 힘들다. Piliavin과 Cialdini는 이타행동으로 불리는 행동도 궁극적으로는 행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Piliavin과 Piliavin(1973)에 따르면, 곤경에 빠진 사람을 목격했을 때의 불쾌감의 해소가 그 이득이고, Cialdini(Cialdini, Darby, & Vincent, 1973; Cialdini & Kenrick, 1976)에 따르면, 남을 돕는 행동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따라서 행위자에게 기분전환의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이타행동에 관한 이러한 이기적 동기 이론에 맞서서 Batson은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이타적 행동의 이타적 동기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연구 업적을 내어 Piliavin(Piliavin, Dovidio, Gaertner, & Clark, 1981)은 Batson의 증거들로 볼 때 이타행동의 적어도 일부는 이타적 동기에 의한다는 Batson의 이론이 옳음을 인정하게 되었다.(Cialdini와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Batson과 그의 동료들의 "이타적 동기에 의한 이타행동"에 관한 20년에 걸친 꾸준한 연구(안신호, 1986 참조)에도 불구하고, "이타적 동기"의 존재에 대한 그들의 논거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그들은 "공감에 의한 도움행동은, 좋은 일을 했다는 정신적 즐거움 이외의 이득이 없으므로 이타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안신호, 1986 참조). 그러나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여기려는 동기"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Baumeister, 1988, 1991), "이타적 동기"라는 애매한 동기개념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Batson(Batson, Batson, Todd, Brummett, Shaw, & Aldeguer, 1995; Batson, Klein, Highberger, & Shaw, 1995)은 최근 내, 외집단 구성원에게의 도움행동을 자신의 공감 패라다임에 따라 실험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는 이타행동 연구영역과 내집단 편애의 연구영역이 독립적 이론체계 속에서 연구될 것이 아니라 통합된 체계를 모색할 때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본 이론모형에서는 공감을 일종의 자아확장으로 간주한다. 이때의 자아확장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자신 속에 포함시키는 것(Batson은 아마 이 입장을 지지할는지 모른다)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자신 속에 포함시키는 것(안신호, 1982, 1983)일 수도 있을 것이다. Batson의 이타적 동기이론에서 자아확장(공감)은 실험적 조작형태로 취급되고, 행동은 직접적인 종속변인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Batson의 '이타적 동기'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추론될 뿐인 가설적 개념이다. 본 연구의 모형의 이타행동에 관한 접근은 공감을 자아확장의 한 예로 개념화하는 이외에, '이타적 동기'라는 애매한 개념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동기가 공감 및 이타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Batson의 이론과 차이가 있다.

개인주의 - 집단주의

개인주의 - 집단주의는 미국, 캐나다, 및 서구 사회 사람들과 아시아 국가 혹은 후진국 사람들과의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개인주의 - 집단주의는 국내에서도 많은 심리학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²⁾

집단주의의 속성에서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은 집단의 목적을 개인 자신의 목적보다 우선하는 경향성과 자아를 집단의 일부로서 파악한다는 것(조공호, 1993; 한규석, 1991; Triandis, 1989a, 1989b;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Triandis, Leung, Villareal, Clark, 1985; Triandis, McCusker, & Hui, 1990)이다. 여기에서의 '집단'이란 '지속적 내집단(stable ingroup)', 예컨대, 가족이나 혈연, 혹은 가까운 친구(차재호와 정지원, 1993; Hofstede & Bond, 1984; Trafimow, Triandis, & Goto, 1991; Triandis 등, 1988; Triandis 등, 1990)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러 국가의 집단주의 성향을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내집단의 종류가 다름에 주의하여야 한다(Triandis 등, 1988). 한국의 집단주의는 몇 가지 종류의 연고주의(가족, 혈연; 지연; 학연)로 환원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연고주의이냐에 따라서 기저동기와 표출행동도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구태여 구분하자면, 우리 나라의 지역연고주의는 집단간 차별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고, 가족, 혈연의 연고주의는 집단주의의 속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혈족중심주의가 한국의, 유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표적 집단주의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집단간 차별 영역에서는 사회적 정체감(social identity)이라는 일종의 자아개념을 가설적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반면, 개인주의 - 집단주의에서는 "자아개념"을 직접 측정하는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집단주의라는 것에 너무 광범위한 것들을 담으려 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주의 - 집단주의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한규석, 1991), 아직 이론 자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보다 체계적인 이론화가 필요하다(한규석, 1991). 본 연구는 개인주의 - 집단주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문제점을 벗어나고자 우리나라의 집단주의를 혈족중심주의로 좁혀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막연히 개인주의 - 집단주의를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여러 도구들을 동기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과 행동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인주의 - 집단주의에 대한 이론 부재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으로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여러 행동 유형들이 '사회적 동기 - 자아확장 - 행동'이라는 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집단주의라는 심리적 현상에서의

2) 1990년도에는 이 주제로 한국심리학회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가졌고, 그 성과물이 두 권의 책(Kim, Triandis, Kagitcibasi, Choi, & Yoon, 1994; Yoon & Choi, 1994)으로 출판되었다.

이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자아확장

우리는 자신을 정의할 때, 성격특성, 직업이나 소속, 거주지나 출생지, 출신학교, 미래 포부, 신체특성, 심지어 과거행적이나 특이한 소유물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한다. 자신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이 자신의 일부가 되고 한 개인은 그 개인 자신의 그러한 사항들로 구성된 하나의 역동적 전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확장”은 타인이나 집단을 자신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로서 자신의 정의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이 설명하고자 하는 세 가지 행동유형 중 집단주의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집단 편애를 설명하는 사회적 정체감 이론은, 그 이론의 명칭이 자아개념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자아개념을 단지 설명개념으로 취급할 뿐이다.

개인주의 - 집단주의 연구를 대표하는 심리학자 중 하나인 Markus 역시 단지 설명개념으로 ‘자아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Markus(Markus & Cross, 1990; Markus & Kitayama, 1991)는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과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개념으로 상호의존적 자아(interdependent self)와 독립적 자아(independent self)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Markus의 상호의존적 자아는, Triandis (1989b)의 집단성향(allocentrism)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며, 그 경향성은 문화적인 사회화 혹은 개인차에 기인한 것으로 취급될 뿐이다.

Markus가 단지 집단주의적 경향과 동의어로 상호의존적 자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집단주의 경향을 정서와 동기 등 다양한 심리적 측면에서 상세히 하려 노력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Triandis는 그가 집단성향이라 부르는 것을 측정하려는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Triandis 등(1985)은 집단주의적 경향성을 재리라고 여겨지는 아홉 가지 스케일을 요인분석하여 얻은 네 요인 중 한 요인의 이름을 “자기확장으로서의 내 집단(ingroup as extension of self)”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가까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가까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등이었다. 따라서 Triandis의 “자기확장으로서의 내집단”이라는 용어는, 자아확장 자체라기보다는 자아확장과 관련된 현상들의 한 요인에 붙인 요인 명칭에 불과하였다.

자아확장을 자신의 정의 안에 타인을 포함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 유일한 예로 Aron을 들 수 있다. Aron과 Aron(1986)은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여 자신을 넓히려는 욕구를 의미하여 자아확장동기(self-expansion motivation)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때 자아확장은 긴장해소 전통의 동기이론에 반대하는 입장의 여러 동기적 개념들, 즉 White(1959)의 역능감(competence), Berlyne(1973), Zuckerman(1979) 등이 주장하는 탐색과 자극추구동기, Deci(1975; Deci & Ryan, 1985)의 내재적 동기 등과 비슷한, 오코넬 Maslow(1970)가 의미하는 성숙동기와 비슷한 것이었다. 그 후 Aron(Aron, Aron, & Smollan, 1992; Aron, Aron, Tudor, & Nelson, 1991)은 연인 관계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가 제안하는 자아확장 도구(IOS Scale: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의 타당성을 보고하고 있다.³⁾ Aron의 이론과 본 연구의 모델의 차이점은 Aron은 자아확장을 일종의 동기로 간주하는 데 반하여, 본 연구의 모델에서는 자아확장은 여러 가지 사회적 동기의 충족을 위한 매개과정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동기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동기적 개념으로 성격 및 사회심리학을 재정립해 보려는 최근의 연구 동향과 일치된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조은경, 1994; Buss & Cantor, 1988; Fiske & Taylor, 1991; Higgins & Sorrentino, 1990; Markus & Zajonc, 1985; Pervin, 1989;

3) 최근 Davis, Conklin, Smith, 및 Luce(1996)는 역할 수행(role taking)이 초면인 타인과 자신의 일치(merging)를 야기함을 특질 추정 및 기억과제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그들은 이 현상이 Aron의 자아확장의 발생기제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orrentino & Higgins, 1986). 한 개인이 자신의 정의 속에 어떤 타인(들)을 포함시킬 때(자아확장), 그 개인은 그 타인(들)을 위한 행동을 할 용의가 생길 것이다. 그 행동은 이른바 이타행동일 수도 있고, 그 타인(들)이 자신과 공통요소가 있는 한 집단일 경우, 내집단 편파일 수도 있고, 이른바 집단주의적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자아확장은 그 개인의 모종의 사회적 동기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상정된다. 사회적 정체감 이론의 대표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여러 사회적 집단 중 어떤 집단에 대하여 사회적 정체감을 느끼는가는 어떤 집단이 그 개인의 자부심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Cialdini, Borden, Thorne, Walker, Freeman, 및 Sloan(1976)과 Tesser(1986, 1988)에 의하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동일시하는가는 그 사람과의 동일시로 자신의 자존감이 얼마나 향상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 결과는 자아확장이 개인의 자존감 증진(혹은 유지)이라는 동기 충족을 위한 것임을 시사한다. 자아확장은 자존감 유지 이외에, 몇 가지 사회적 동기의 충족과도 관련되리라 여겨진다.

끝으로 본 이론모형에 포함된 사회적 동기들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동기적 접근에 있어서 가장 경제해야 할 일은 동기종류의 남발이다. 본 이론모형에 포함된 동기(그림 1 참조) 중 無化 공포 극복동기를 제외한 네 가지 동기는 Maslow(1970)의 다섯 가지 동기 중 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두 가지 동기(자존감의 욕구, 소속 및 사회적 지지의 욕구)와 Baumeister(1991)의 네 가지 동기 중 세 가지이다(자존감의 욕구는 중복됨). Baumeister(1991)의 연구는 최근 성격심리학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연구 경향, 즉 동기

적 측면에서 성격을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Buss & Cantor, 1988; Pervin, 1989 참조) 중 가장 깊이있는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의미있다고 여길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욕구를 삶의 목표를 가지려는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율성(그의 용어로는 self-efficacy)의 욕구, 그리고 자신을 올바르게 선택한 사람으로 믿으려는 욕구(그의 용어로는 value 혹은 justification)의 네 가지로 압축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욕구 중 자신을 선택한 사람으로 믿으려는 욕구, 자율성의 욕구, 그리고 자존감의 욕구(Maslow와 중복됨)의 세 가지가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가 규범으로 요구하는 행동에 속하는 이타행동과 집단주의 행동에 있어서는 자신이(규범을 잘 지켜) '올바른, 선택한 사람이라고 믿고자 하는 동기'도 중요하리라 여겨 포함시켰다. 자율의 동기는 1970년대 이전에는 심리학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심리학 연구의 공헌으로 자율의 동기는 인간 행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동기로 인정받고 있다(Baumeister, 1991; Deci, 1975; Deci & Ryan, 1985; Langer, 1975). 자신의 정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타인은 자신의 삶에 그만큼 관여,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생각하면 자율감 욕구의 좌절이 심할수록 그 좌절의 원인이 되는 타인을 위한 행동 역시 감소하리라고 추론할 수 있지만, 자율감 욕구와 타인을 위한 행동 사이에는 보다 복잡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자신과 전혀 무관한 타인은 자신의 자율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무관한 타인을 위한 행동이 많을 리는 없다. 역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때로는 자율의 욕구를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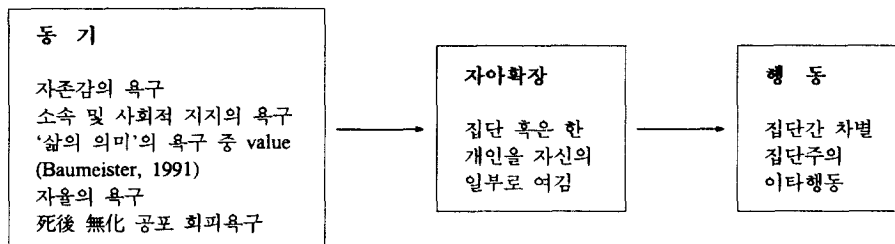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

저해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가장 큰 자기 희생을 한다. Triandis를 비롯한 집단주의 연구자들, 그리고 Aron 등 자아확장 연구자들도 이 자율감 좌절을 그들의 연구에서 한 변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 속의 동기들은, 따라서, 대부분 인간의 대표적 사회적 동기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다.

내집단 편애의 동기적 측면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고, 이타행동을 동기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Batson에 의해 꾸준히 계속되어 온 반면, 집단주의의 동기적 측면은 지금까지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흔히 농경사회와 확대가족이 집단주의와 관련지어 논의되어 왔다(Triandis 등, 1990). 그러나 농경사회와의 관련은 농업이 주업이 아닌 지 오래인 일본과 홍콩이 집단주의를 대표하는 사회로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온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확대가족은 가족 및 혈연 중심주의와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동거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는 확대가족 개념을 넘어, 확대가족 요인과 심층적으로 관련되리라 생각되는 동기요인으로서, '죽음후의 무화(자기의 존재조차 완전히 없어짐)에 대한 공포'에 주목하기로 하였다. '무화의 공포'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도 심각한 심리적 문제이며(Batson & Ventis, 1982), 따라서 인류는 문화에 따라 각기 약간씩 다른 종교적 장치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유교권의, 특히 한국의 무화공포 극복장치(일본의 神道도 비슷한 믿음체계를 갖는다고 하는데) (1)사후세계(저승)의 존재, (2)그 사후세계에서 가족들의 관계가 계속 지속됨(사후세계가 천국, 지옥처럼 이원화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만나게 되리라 믿게 되는 것도 중요할 것임), (3)세례, 성묘 등의 관습으로 조상과 후손이 현실생활 중에서도 자주 연결됨, (4)그리고 우리 나라에 특이한 것으로서,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남음(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음)의 특성을 갖고 있다.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가족은 소속감과 사회적 지원의 가장 큰 원천이며, 또한 자존감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므로(안인호, 1997), 가족중심의 집단주의 경향성은 어느 문화에나 다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있어 사후 무화공포 극복장치로서의 "죽음을 초월한 가족, 혈연연결에 대한 믿음"은 혈연과의 관계를 더욱 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자아확장의 강도를 강하게 함과 아울러, 사회적 지원의 욕구 및 자존감의 욕구 충족의 원천으로서의 가족 및 혈연관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혈연중심주의가 유교권의 규범에 그 기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에 관련하여, 관련 규범의 지속에 있어서의 무화공포 극복동기의 가능한 기능을 첨가하고자 한다⁴⁾. 규범은 그 규범이 그 사회를 잘 기능하도록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외적 여건 속에서 지속되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실여건이 변화하여 새로운 세대가 그 규범의 현실적 불필요성을 자각하게 되면 젊은 세대는 규범강요세대인 연장자를 설득하려 하게 되고, 그 규범은 점점 효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런데 무화공포는 무화의 위협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노인 층에서 더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며, 노인 층은 무화공포 극복장치들을 신성시하여 젊은 세대의 저항에 대하여 범법치 못할 규범으로 고수하는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집단주의 경향성 및 자아확장의 측정

집단주의 경향성의 측정은 1985년 이후 Triandis의 많은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용된 소검사들은 타인들과의 유사성 지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집단 구성원의 의견을 얼마나 참조하는가, 내집단의 균질성 지각, 자신의 돈, 노력, 여행계획 등을 타인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는가, 타인이 장한 일(혹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자부심(혹은 수치심)을 느끼는가, 사회적 거리, 각종 태도 혹은 가치 조사 중 관련 문항, TST(Twenty Statement Test) 등이었다. 이 검사들의 반응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연구마

4) Greenberg, Pyszczynski, 및 Solomon(1986; 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1991)은 죽음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간은 불멸(immortality)을 보장받기 위한 규범(세계관)에 집착하게 됨을 주장하는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을 제안하고 최근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다 조금씩 다른데, (1)내집단의 한 구성원을 위하여 개인의 욕구 충족을 양보하기, (2)내집단과의 일체감, (3)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배려(concern), (4)내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음 등이 대표적인 요인이었다. 이 집단주의 경향성을 측정하는 소검사들 중 어떤 것은 동기적인 것, 어떤 것은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 또 어떤 것은 자아개념과 관련된 것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Triandis 이외에 Hui 등 다른 연구자들의 측정도구들은 대개 위에 열거한 Triandis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자아확장은 자신의 정의 안에 타인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열거한 집단주의 경향성 지표 중 자아확장을 측정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TST이다. TST는 “나는 _____”의 20문장을 완성토록 하는 투사법 검사로서, 바로 자신을 정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서, 본 연구의 “자아확장”의 정의상, 자아확장의 아주 직접적인 측정방법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예비조사(N=123)에 의하면 약 60%의 응답자는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정의를 하나도 응답하지 않아 혈연 중심의 집단주의 연구에서 사용할 자아확장 측정도구로서는 변별력 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⁵⁾ 자아확장의 측정을

5) 이 방법의 영어판(Cousins, 1989; Rhee, Uleman, Lee, & Roman, 1995; Trafimow 등, 1991; Triandis 등, 1990)은 “who am I?”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I am _____”이라는 공란에 적게 하는 것이었는데, 미국 응답자들이 일본, 한국 응답자들보다 성격특질을 많이 답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나는 _____”이라는 답지를 제공하였다(Rhee 등, 1995). 일본인들에게도 아마 한국인들과 같은 양식의 답지가 제공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전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I am _____” 다음에는 보어로 형용사가 쉽게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성격특질형용사의 반응빈도가 영어권 및 영어와 같은 문법구조의 언어권 참가자들에게서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Who am I?”의 번역문으로서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나는 누구인가?”라는 표현 역시 형용사보다는 명사 답을 유도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어 “Who am I?”와 동가적으로 보기 어렵다. “Who am I?”는 흔히 “나는 누구인가?” 이외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혹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_____이다/하다”라는 응답 양식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질문 양식 “나는 누구인가?”에 응답 양식 “나는 _____이다” 혹은 “나는 _____인” 조건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만약 전자의 양식에서는 미국인 수준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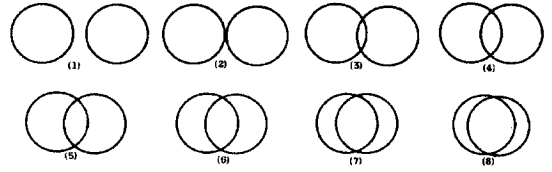


그림 2. 자아확장 척도(IOS Scale)의 중첩원

위하여 Aron 등(1991, 1992)이 제안한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중첩된 정도가 다른 한 쌍의 원들을 여러 개 제시하고 특정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가 그 중첩원들 중 어느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응답자가 원의 중첩의 의미를 무엇이라 생

용사 응답 및 성격특질형용사 응답이 나타난다면 지금까지 미국 심리학자들이 TST를 사용하여 발견한 미국인과 한국(혹은 일본)인간의 차이는 모두 무시해야 할 것이다. 이 검사를 최초로 사용한 심리학 연구(Cousins, 1989)의 여러 가설 중 하나는 동양인(일본인)이 추상적 사고의 능력 면에서 미국인보다 열등하다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가설은 Cousins(1989)에 의하여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Cousins의 방법 및 결론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Cousins는 일본인이 비록 전통적인 TST 양식에서는 이전 연구에서처럼 형용사 반응이 적으나, 응답 양식에 “at home,” “in the restaurant”처럼 상황을 의미하는 부사구를 첨가하면 오히려 형용사 반응이 미국인들보다 더 많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이 결과를 일본인이 보다 집단주의적인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in the restaurant”에 상응하는 일본어 응답지 표현이 “식당에서”이었는지, 아니면 “식당에서는”이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말의 “는”은(이 “는”은 일본어에도 있는데) 영어권 언어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뉴앙스를 갖는다. 요컨대, Cousins의 결과 역시 심리학적 실체의 차이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언어차이에서 온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연구에서는 사용 언어가 다른 두 문화를 연구할 때 늘 안전책으로 쓰이는 역번역(back translation)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한 언어의 어떤 표현에 대한 다른 언어의 최적의 상응 표현이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경우, 그 의미상의 미묘한 차이가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두 문화권 사람의 심리적 차이로 해석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TST를 다양한 질문 및 응답 양식으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각 질문지/응답지 조건의 조사참가자 수가 적어서인지 조건간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가족/친척 관련 자기 정의의 수가 너무 적어 본 연구의 주제인 “가족/친척의 자아확장”의 지표를 얻는 데 TST는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의 시도를 멈추었다. 한가지 더 사족을 붙인다면, 대중매체에서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표현이 “Who are they?”의 의미를 갖게 되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것이다.

각하는지에 따라 반응이 결정될 것이므로 자아확장의 지표로는 다소 애매하고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Aron 등(1991, 1992)의 측정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방 법

조사참가자

대학생 815명, 노인 146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21페이지의 설문지 중 한, 두 페이지 전체를 응답하지 않은 대학생 자료 14명 분을 제외하고, 분석을 위하여 채택된 것은 부산대 학생 361명(남 176명, 여 184명)%, 인제대 학생 235명(남 110명, 여 118명), 경상대 학생 205명(남 79명, 여 116명), 노인 146명(남 57명, 여 88명), 도합 947명의 자료이었다.

출생지를 응답한(이하 같은: 주 6 참조) 부산대학교 학생의 78%(279명)는 대도시에서 출생하였으며 13%(46명)는 소도시, 9%(33명)는 읍면 단위의 시골에서 출생하였다.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응답자의 58%(131명)는 대도시, 32%(73명)는 소도시, 9%(21명)는 시골, 그리고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응답자의 58%(113명)는 소도시, 27%(53명)는 시골, 14%(28명)는 대도시 출신이었다. 소도시와 시골을 묶은 '대도시'대 '소도시+시골' 출신의 비율은 부산대 78대 22, 경상대 14대 86이었다. 인제대 응답자의 그 비율은 58대 42로서 다른 두 대학교 응답자의 중간 정도의 비율이었다. 노인 응답자들은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중이었으나, 시골에서 출생한 비율이 아주 높았고(70명, 50%), 소도시(38명, 27%) 및 대도시(33명, 23%) 출생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세 대학생 집단 각기 약 50% 정도는 종교가 없었으며, 나머지 학생의 약 반은 각기 불교 신자이거나(21 - 28%), 기독교(천주교 포함) 신자(20 - 27%)이었다. 노인은 종교가 없는 비율이 낮았고(17%), 불교 신자가 50%로서 가장 많았다(기독교, 및 천주교 신자는 32%). 노인의

6) 세부 분류별(예컨대 남, 여) 인원수와 합계와의 차이는 그 항목 미기재인 사례임. 즉, 부산대 응답자 361명 중 1명은 성을 기재하지 않았음. 이하 같은.

연령은 52세부터 85세(남 55 - 83세, 여 52 - 85세)로서 평균 연령은 66세(남 65.7, 여 66.1)이었다. 60대가 가장 많았으며(남 63%, 여 50%), 70대는 남, 여 각 23%이었다.

도구 및 절차

대학생 참가자의 자료는 정규 수업시간 중의 설문지 실시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노인 참가자의 자료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들의 개별 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45분이었으며, 노인의 경우 약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대학생은 보너스 점수, 노인은 시가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례로 받았다.

21페이지를 한 묶음으로 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설문지 1은 Aron 등(1991, 1992)의 자기확장 척도이었다. 그림 2를 제시하고 자신과 어떤 사람(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것을 골라 그 그림의 번호, 1부터 8까지의 수 중 하나를 그림 아래의 각 대상 옆 괄호에 쓰도록 지시하였다. 그림 밑에 23가지 대상을 제시하였다. 이 대상들 중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것은 다음의 11가지이었다: (1)처음 만난 낯선 사람, (2)부모, (3)형제자매, (4)조부모, (5)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6)사촌, (7)오촌 이상의 친척, (8)친척은 아니지만 동성동본인 사람, (9)약혼자 혹은 배우자(약혼을 하였거나 결혼을 하였다고 상정하고 답함), (10)자녀(결혼하여 자녀를 두었다고 상정하고 답함), (11)손자, 손녀(손자, 손녀를 둔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 연령이라고 상정하고 답함).⁷⁾

설문지 2부터 설문지 16까지는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설문지 2 - 설문지 10)과 집단주의적 동기(설문

7)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12 가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 동창생, 같은 학과, 학교, 및 서클의 학생,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지역(도,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 구, 리, 동) 출신인 사람,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무신론자인 경우 다른 무신론자), 애인(애인이 있는 경우만 답함), "애인"과 "약혼자 혹은 배우자"는 의미가 거의 중복되리라 여겨지기는 하지만, 이 설문지가 원래 Aron 등(1991, 1992)의 연인관계 연구에 사용된 도구이었으므로, 후속 연구의 자료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문지 1에는 "애인"을 포함시켰다.

지 11 - 설문지 16)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문지 2와 3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집단 구성원의 의견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Triandis 등(1985)이 ATT로 부른 것이었다. 설문지 2에서는 대학전공, 직업, 배우자 선택의 경우, 그리고 설문지 3에서는 복장, 정치적 입장, 취미활동, 종교에 관한 결정의 경우, 대상 사람의 의견을 고려한 정도에 따라 1(전혀 고려하지 않음)부터 4(아주 많이 고려)까지의 4점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었다⁸⁾.

설문지 4부터 7까지의 네 가지 역시 Triandis 등(1985)에서 차용한 것으로서 내집단 구성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설문지 4에서는 “당신은 2년 정도 외국에서 특별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준비를 하여 왔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공부는 당신 자신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상상하십시오. 다음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당신이 출국하면 그 사람이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해외 연수를 포기할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설문지 5에서는 “당신이 복권에 당첨되어 큰 돈을 갖게 되었다고 상상하십시오.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혹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그 돈을 나눠 주겠습니까? 준다면 얼마만큼 주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설문지 6에서는 “당신이 당신의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저축하였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당신에게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 7에서는 “당신이 당신의 일로 무척 바쁜데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일 주일 정도 걸리는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부

탁하였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은 그 부탁을 들어 주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네 가지 변인은 Triandis 등(1985)에 따라, 각기 TRIP, LOT, LOAN, WORK이라는 부호로 불리울 것이다.

설문지 8부터 10까지의 세 가지는 내집단 편애의 행동경향성 정도를 측정하고자 제작되었다. 투표시 내집단 구성원을 지지하는지(설문지 8), 교통법규를 위반한 내집단 구성원(설문지 9) 혹은 서류를 빨리 발급받기를 원하는 내집단 구성원(설문지 10)에게 특별 대우를 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설문지 8에서는, “당신 선거구의 현 국회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원의 자질이 인정된 사람이라고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그 현 국회의원의 경쟁자라고 다음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출마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번에 당선되면 처음 국회의원 이 되는 것이므로 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은 미지수이지만 평소의 건실한 생활로 보아 적어도 정치 모리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안심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투표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 9에서는 “당신이 교통순경으로 일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관찰하는 지역에서 다음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위반한 것은 비교적 경미한 것이어서 위반한 사람의 약 10%에게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경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벌금 딱지를 떼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 10에서는 “당신이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다음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여 신청순서보다 빨리 발급하여 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 11과 설문지 12 역시 Triandis 등(1985)에서 차용한 것이다.(각기 HNP, CNP로 부름; 본 연구에서는 REF_P, REF_N의 부호를 사용할 것임.) 설문지 11은 내집단 구성원과의 동일시를 통하여 자신의 자존

8) 설문지 2부터 설문지 15까지는 4점 척도 상에 답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집단주의적 동기 혹은 행동경향성이 아주 강한 경우 4에 평정토록 되어 있었다.

감을 향상시키는 경향성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Adler는 이러한 경향성을 동일시라 불렀고, 최근 Tesser는 반영(reflection)이라 부르고 있다(Tesser, 1986, 1988; Tesser & Campbell, 1980, 1982). 내집단 편파에 관한 Tajfel, Turner 등의 사회정체감 이론은 이 반영을 통한 자존감 증진을 내집단 편파의 유일한 동기로 간주하고 있다. 설문지 11은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주 어려운 일에 성공하여 큰 상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의 성공은 당신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리라 생각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 12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신 스스로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느끼게 되리라 생각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 13과 14는 사회적지지 욕구 충족 기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설문지 13에서는 “당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준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설문지 14에서는 “당신이 힘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의 그 문제를 함께 걱정해주고 도와주리라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 15는 Baumeister(1991)의 가치(value) 욕구, 즉 집단주의적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당신이 만약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킬 수 없게 된다면, 즉 그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면가 할 경우, 당신은 얼마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도록 지시하였다.

설문지 16은 집단주의적 행동으로 인하여 자율의 욕구에 좌절을 받으리라 예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즉, “당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수반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즉

그 사람(들)이 당신의 문제에 과도하게 참견한다든가, 그 사람(들)의 일로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야 한다든가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당신이 원하는 당신 자신의 자율적인 삶에 얼마나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4점 척도(방해된다는 느낌이 전혀 (혹은 거의) 없다면 1, 아주 많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된다면 4)에 답하도록 지시하였다.

설문지 17은 Aron 등(1991)의 연구에서 IOS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이 IOS 척도 응답시 그림의 원 중첩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묻은 10가지 척도를 번역한 것이었다. 반응은 찬반의 4점 척도 상에 하도록 되어 있었다. 설문지 19는 Conte, Weiner, 및 Plutchik(1982)의 죽음 불안 설문지(Death Anxiety Questionnaire)를 번역한 15개 찬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그 밖의 두 설문지는 제례와 족보에 대한 태도(설문지 18), 그리고 죽음에 관련된 보충 질문(설문지 20)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설문지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종교, 출생지 등을 적도록 되어 있었다.

노인용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학생용 설문지와 동일하였다. 단지 보다 분명한 존재어 어미를 사용한 것과 설문지 1부터 16까지의 대상 제시시 약간의 차이만이 있었다. 즉, 같은 학교 재학생을 “같은 직장에서 일하시던 동료”로, 서클 친구를 “가입하신 모임의 동료”로 대체하였으며, 그리고 대학생에게 자녀, 손자, 손녀, 배우자 등의 대상을 제시할 때 첨가하였던 단서(예컨대, 자녀의 경우, “당신이 결혼하여 장성한 자녀를 두었다고 가정함”)를 삭제하였다.

결 과

측정치

설문지 1부터 16에서는 설문지에 따라 19, 20, 22, 혹은 23 대상 인물에 대하여 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중 혈연을 나타내는 열 대상, 그리고 비교대상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만을 본 연구의 자료로 채택하였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집단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는 정도를 측정한 설문지 2와 3의 일곱 가지 변인들은 예비 요인분석 결과 한 요인을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에 있어서 자기 희생이나 내집단 편애에 속하는 변인들보다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결과 제시에서 생략하기로 하였다. 이 생략된 변인들의 집단별 경향성은 자기 희생이나 내집단 편애 변인들과 다르지 않았다.

요 인 분 석

자아확장 척도의 의미

자아확장 설문지에 답할 때 원의 중첩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10가지 척도 상에 답하게 하였다(설문지 17). 그 반응을 요인분석(베리맥스 회전의 주성분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의 세 요인은 각기 변량의 20%를 설명하는 대등한 중요성을 갖는 것이었다. 자신이 대상 때문에 자율성을 상실하는 정도와 대상이 자신 때문에 자율성을 상실하는 정도를 주로 대표하는 “자율성 상실” 차원, 심리적 유대감, 상호간의 유사성, 함께 하는 활동이나 시간의 정도를 대표하는 한 차원, 그리고 대상이 자신에 포함되는 정도, 자신이 대상에 포함되는 정도에 주로 관련되는 “포함관계” 요인의 세 가지이었다. 이 결과는 Aron 등(1991)의 요인분석 결과와 거의 같았다. 노인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각 문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애매하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면담 학

표 1. 자아확장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 인		
		I	II	III
자신으로 인한 대상의 자율성 상실		.911	.026	.034
대상으로 인한 자신의 자율성 상실		.892	-.027	.043
대상을 통한 자신의 자아 확장		.452	.312	.205
대상과의 심리적 유대감		-.043	.753	.171
대상과의 유사성		.111	.684	.006
대상과 함께 활동함, 함께 시간 보냄		.204	.598	-.026
대상에게 가깝게 느낌		-.161	.519	.449
자신과 대상과의 일체감		-.168	.470	.467
대상이 자신에게 포함됨		.138	.031	.877
자신이 대상에게 포함됨		.187	.064	.848

생들의 보고가 있어 노인들의 자료만을 별도로 요인 분석하여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세 요인이 발견되었다.

동기 지표들의 요인분석

대상 인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는 정도(설문지 13), 도움과 관심을 받기를 기대하는 정도(설문지 14), 대상 인물이 큰 성공을 하였을 때 자부심이 올라가는 정도(설문지 11), 대상 인물의 큰 잘못에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설문지 12), 대상 인물과의 관계로 자율감이 방해받는 정도(설문지 15), 대상 인물에 의 의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설문지 16)를 각기 응답케 한 여섯 가지 설문지에서 10 가지 혈연 대상 인물에 관련된 문항들을 요인분석(베리맥스 회전의 주성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변량의 21%를 설명하는 첫째 요인은 “사회적 지지 욕구” 요인이었다. 대상 인물로부터 사랑, 도움, 관심을 기대하는 정도가 큰 부하를 갖고 있었다. 둘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18%를 설명하는 “동일시를 통한 자존감 증진” 요인이었다. 대상 인물이 성공했을 때의 자부심, 잘못했을 때의 수치심이 이 요인에 포함된다. 셋째 요인은 “자율성 방해” 요인이었다. 여섯 가지 변인 중 위의 다섯 가지는 첫째, 둘째, 셋째 요인에 각기 둘, 둘, 하나씩 관련된다. 그런데, 상대방에의 의리지킴의 변인은 첫 두 요인에 걸쳐 부하를 갖고 있었다. 요인수를 넷으로 늘려 요인분석을 하여도 의리지킴의 변인이 독립되는 것은 아니었다.(네 요인으로 요인분석을 하면 동일시를 통한 자존감 증진 요인이 둘로 나뉘어진다.)

집단주의 행동경향성의 요인분석

일곱 가지 집단주의 행동변인의 요인분석(베리맥스 회전의 주성분 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변량의 18%를 설명하는 첫째 요인은 “자기 희생” 요인으로서 대상 인물에게 돈을 빌려줌, 복권 당첨금 나눠줌, 여행 포기, 일 도와줌의 네 변인이 이에 속했다. 16% 설명의 두 번째 요인은 “내집단 편애” 요인으로서 서류나 벌금 상황에서 내집단 구성원에게

표 2. 동기 변인들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문항	요인		
	I	II	III		I	II	III
사랑받음 - 동본	.431	-.154	.014	성공자부심 - 동본	.132	.230	-.072
사랑받음 - 부모	.514	.093	-.023	성공자부심 - 부모	.134	.578	-.049
사랑받음 - 사촌	.702	.079	-.010	성공자부심 - 사촌	.359	.537	-.045
사랑받음 - 삼촌	.699	.114	-.011	성공자부심 - 삼촌	.355	.564	-.039
사랑받음 - 손자	.664	.109	-.044	성공자부심 - 손자	.238	.592	-.044
사랑받음 - 아내	.496	.132	.037	성공자부심 - 아내	.183	.553	-.044
사랑받음 - 오촌	.616	.045	-.041	성공자부심 - 오촌	.346	.393	-.096
사랑받음 - 자녀	.621	.087	-.016	성공자부심 - 자녀	.123	.585	-.074
사랑받음 - 조부	.686	.056	-.014	성공자부심 - 조부	.289	.585	-.087
사랑받음 - 형제	.638	.078	-.025	성공자부심 - 형제	.166	.582	-.059
도움받음 - 동본	.455	-.078	.016	잘못수치심 - 동본	.144	.205	.041
도움받음 - 부모	.536	.180	.020	잘못수치심 - 부모	-.094	.797	.126
도움받음 - 사촌	.758	.114	.029	잘못수치심 - 사촌	.122	.724	.051
도움받음 - 삼촌	.730	.159	.032	잘못수치심 - 삼촌	.091	.748	.075
도움받음 - 손자	.704	.139	-.028	잘못수치심 - 손자	.015	.761	.094
도움받음 - 아내	.509	.213	.023	잘못수치심 - 아내	-.042	.752	.118
도움받음 - 오촌	.638	.075	-.034	잘못수치심 - 오촌	.193	.516	.037
도움받음 - 자녀	.676	.161	-.066	잘못수치심 - 자녀	-.033	.738	.108
도움받음 - 조부	.715	.118	-.035	잘못수치심 - 조부	.044	.800	.086
도움받음 - 형제	.654	.156	-.050	잘못수치심 - 형제	-.080	.801	.112
의리의무 - 동본	.303	.071	.013	방해받음 - 동본	.059	-.035	.386
의리의무 - 사촌	.621	.301	.048	방해받음 - 사촌	-.067	.053	.919
의리의무 - 삼촌	.611	.328	.027	방해받음 - 삼촌	.019	-.071	.911
의리의무 - 손자	.486	.377	.018	방해받음 - 손자	.019	.089	.924
의리의무 - 오촌	.546	.200	-.026	방해받음 - 오촌	-.023	.068	.922
의리의무 - 조부	.584	.313	.014	방해받음 - 조부	-.084	.080	.915
의리의무 - 형제	.412	.368	.038	방해받음 - 형제	.038	-.020	.756
의리의무 - 자녀	.400	.402	.021	방해받음 - 자녀	-.051	.100	.911
의리의무 - 아내	.339	.412	.031	방해받음 - 아내	.011	.028	.938
의리의무 - 부모	.357	.380	.053	방해받음 - 부모	-.035	.056	.938

특별대우를 해 주는 내용의 두 변인이 이에 속했다. 성질상 내집단 편애로 볼 수 있을 “내집단 구성원 후보에게 투표하기” 변인은 12% 변량을 설명하는 셋째 요인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요인 부하량의 패턴으로 볼 때 이 두 요인은 확연히 구분되었다.

죽음 불안 척도의 분석

죽음 불안 척도의 열 다섯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베리맥스 회전의 주성분 분석) 결과 추출된 네 요인 중 두 번째 요인이 죽음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주관 심사인 “사후 무화”에 관한 공포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변량의 16%를 설명하고 있었다. 세 가지 문항이 이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후를 알 수 없음, 죽은 후 영원히 사라짐, 그리고 막연히 “죽음이 걱정 됩니까?”라는 문항이었다⁹⁾.

9) 변량의 17%를 설명하는 첫 요인은 죽기 전에 닥칠 “육체적, 심리적 고통”에 관한 것으로서, 오랜 병, 신체적 고통, 자제력 상실, 자신의 괴로움을 주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의 네 문항이 높은 부하를 갖고 있었다. 세 번째 요인은 변량의 15%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남, 임종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곁에 없음, 임종시 곁에 아무도 없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망각될 네 문항으로 구성되는, 죽음과 관련된 “대인적(사람-관련) 걱정”의 요인이었다. 네 번째

표 3. 집단주의 행동경향성 변인의 요인분석

문항	요인			문항	요인		
	I	II	III		I	II	III
돈빌려줌 - 동본	.256	-.017	.011	일도와줌 - 아내	.517	.179	.080
돈빌려줌 - 부모	.495	.123	.040	일도와줌 - 오촌	.553	.015	.051
돈빌려줌 - 사촌	.708	-.021	-.011	일도와줌 - 자녀	.631	.173	.051
돈빌려줌 - 삼촌	.695	-.059	.031	일도와줌 - 조부	.691	.070	.045
돈빌려줌 - 손자	.701	.056	.014	일도와줌 - 형제	.583	.146	-.072
돈빌려줌 - 아내	.548	.106	.064	서류빨리해줌 - 동본	.111	.335	-.041
돈빌려줌 - 오촌	.526	-.027	.022	서류빨리해줌 - 부모	.056	.822	-.036
돈빌려줌 - 자녀	.624	.111	.074	서류빨리해줌 - 사촌	.131	.780	.033
돈빌려줌 - 조부	.693	-.051	.057	서류빨리해줌 - 삼촌	.105	.802	.013
돈빌려줌 - 형제	.574	.052	.014	서류빨리해줌 - 손자	.122	.823	.022
복권나눠줌 - 동본	.259	.053	-.027	서류빨리해줌 - 아내	.104	.813	.011
복권나눠줌 - 부모	.429	.171	-.019	서류빨리해줌 - 오촌	.163	.631	.074
복권나눠줌 - 사촌	.669	-.033	-.051	서류빨리해줌 - 자녀	.109	.832	.017
복권나눠줌 - 삼촌	.640	-.055	-.025	서류빨리해줌 - 조부	.092	.809	-.085
복권나눠줌 - 손자	.592	.113	-.023	서류빨리해줌 - 형제	.030	.824	-.025
복권나눠줌 - 아내	.463	.178	.013	벌금딱지안땀 - 동본	.059	.283	.081
복권나눠줌 - 오촌	.488	.031	-.053	벌금딱지안땀 - 부모	-.021	.771	.241
복권나눠줌 - 자녀	.526	.184	-.068	벌금딱지안땀 - 사촌	.049	.728	.272
복권나눠줌 - 조부	.627	.018	-.016	벌금딱지안땀 - 삼촌	.051	.748	.283
복권나눠줌 - 형제	.507	.137	-.084	벌금딱지안땀 - 손자	.080	.730	.254
여행포기 - 동본	.183	-.060	.053	벌금딱지안땀 - 아내	.037	.743	.259
여행포기 - 부모	.421	.143	.119	벌금딱지안땀 - 오촌	.091	.597	.269
여행포기 - 사촌	.648	.015	.100	벌금딱지안땀 - 자녀	.067	.739	.262
여행포기 - 삼촌	.647	.011	.111	벌금딱지안땀 - 조부	.031	.762	.274
여행포기 - 손자	.553	.034	.196	벌금딱지안땀 - 형제	-.015	.772	.244
여행포기 - 아내	.442	.147	.176	투표 - 동본	-.023	.012	.481
여행포기 - 오촌	.482	-.033	.100	투표 - 부모	.034	.196	.886
여행포기 - 자녀	.477	.130	.191	투표 - 사촌	.123	.174	.883
여행포기 - 조부	.603	.026	.106	투표 - 삼촌	.126	.205	.894
여행포기 - 형제	.495	.111	.100	투표 - 손자	.091	.218	.873
일도와줌 - 동본	.311	.027	-.014	투표 - 아내	.092	.224	.846
일도와줌 - 부모	.520	.164	.017	투표 - 오촌	.102	.149	.751
일도와줌 - 사촌	.696	.072	.042	투표 - 자녀	.080	.221	.873
일도와줌 - 삼촌	.699	.019	.065	투표 - 조부	.122	.169	.908
일도와줌 - 손자	.684	.104	.056	투표 - 형제	.058	.195	.894

죽음 후의 무화에 대한 '존재적 불안' 요인의 대학생들의 평균점수는 2.01(남 1.97, 표준편차 .75; 여

요인은 변량의 11%를 설명하는 "실제적 불안" 요인으로서, 죽음과 관련된 여러 비용, 재산이나 소유물에 대한 유언의 이행, 사망전 매장 가능성의 세 문항이 이에 속하였다. 열 다섯 문항 중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문항은 세 요인에 걸쳐 비슷한 부하량을 보이고 있었으나, 나머지 열 네 문항은 비교적 유사한 것끼리 요인을 잘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2.04, 표준편차 .74)인 반면 노인들의 평균점수는 1.60(남 1.51, 표준편차 .58; 여 1.66, 표준편차 .66)으로서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집단별 주효과($F(3, 918) = 14.70, p < .001$)와 성 주효과($F(1, 918) = 4.25, p < .04$)가 유의하였다. 이는 노인들이 느끼는 사후 무화에 대한 '존재적 불안' 정도가 대학생보다 약하다는 것으로서, 예상 밖의 결과이었다. 노인들이 존재적 불안

을 억압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죽음에 대하여 모종의 달관의 경지에 달하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그들의 신앙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이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은 83%로서 대학생의 50%보다 높았다. 기독교 및 천주교는 사후 무화의 존재적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길을 교리의 핵심 속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기독교 및 천주교 신자들은 불교 신자 혹은 무종교 집단보다 존재적 불안 수준이 낮았다. 즉 기독교 혹은 천주교를 믿는 노인의 평균은 1.41(표준편차 .52), 대학생의 평균은 1.74(표준편차 .68)인 반면 불교를 믿는 노인은 1.67(표준편차 .67), 대학생은 2.12(표준편차 .71), 그리고 무종교인 노인은 1.78(표준편차 .65), 대학생은 2.07(표준편차 .76)이었다. 그러나, 무종교의 노인의 평균(1.78)이 기독교 혹은 천주교 신자인 대학생들의 평균(1.74)과 차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종교 이외의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함을 암시한다. 죽음 후의 무화에 관한 문제는 본 연구의 자료로는 더 이상의 취급이 곤란하므로 이후의 결과에서는 이 변인 및 관련 변인(제례, 성묘, 족보 등)에 관한 것을 제외하기로 한다.

집단간 차이

개인주의 - 집단주의 연구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Hofstede(1980, 1991)에 의하면, 일본이 부유해지고 도시화,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개인주의 성향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혈연을 자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경향성을 비롯한 집단주의적 동기 및 행동경향성이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도시화, 핵가족화 될수록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옛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소도시 소재 대학교인 경상대학교 학생들과 도시화, 핵가족화로 옛 전통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겨지는 대도시의 부산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도시 인근의 인제대학교 학생들을 비교함으로써 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세 대학교 학생들은 출생지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도시 출생자의 비율이 부산대생에서는 78%, 인제대생은 58%, 경상

대생은 14%이었다($\chi^2(2)=206.72, p<.001$). 또한 옛 전통에서 벗어난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있는 노인들의 자료도 함께 비교하게 될 것이다.

열 가지 혈연 대상 인물 및 낯선 사람에 대한 여섯 가지 집단주의 동기 변인, 및 일곱 가지 집단주의 행동경향성 변인, 그리고 자아확장, 이렇게 도합 열 네 가지 변인의 평정치들을 예비분석한 결과 오촌이상의 먼 친척이나 동성동본인 사람에 대한 경상대생과 노인들의 평균 점수가 각기 열 세 가지 변인에서 부산대 학생들보다 높았다. 그런데 경상대 학생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에서도 점수가 높았다. 이것은 경상대 학생들의 시골사람다운 마음종음의 반영일지 모르겠는데, 이 경향성이 먼 혈연에게의 너그러움으로 연장되어 앞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분석에서는 각 혈연 대상에 대한 반응에서 낯선 사람의 반응을 뺀 수치를 원 자료로 하였다¹⁰⁾.

가족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이다. 한국의 집단주의를 가족주의, 혈족주의라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촌수가 먼 친척을 내집단 구성원으로 중요시하는 정도가 다른 문화권에서보다 강하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친척이라 함은 동성동본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촌수로 따질 수 있는 친척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집단주의의 경우, 먼 친척(본 연구에서는 “오촌 이상의 친척”)에게 보이는 집단주의적 경향성(자아확장, 집단주의 관련 동기, 집단주의적 행동)의 정도가 집단주의 강도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이를 “먼 - 친척지표”라 부를 것이며, 가족에 대한 애착 정도를 “가족지표”¹¹⁾

10)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 및 기저동기 변인들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앞에 제시된 결과 역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정치 자체가 아니라 각 평정치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평정치를 뺀 값을 자료로 한 것임.

11) 예비분석 결과 평균치의 변인별, 집단별 패턴에 있어서, 부모,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유사하여 한 범주로 묶을 수 있었다. 형제에 대한 반응은, 변인에 따라서는, 삼촌, 사촌에 대한 반응보다는 부모,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반응과 보다 유사하였다. 그러나, 집단주의 경향성의 가장 뚜렷한 지표, 즉 먼 친척(오촌 이상)에 대한 반응과 아주 가까

라고 부를 것이다. 집단주의적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한 지표는 먼 친척을 가까운 혈연(가족)과 비슷하게 여기는 정도, 즉 가족지표의 값에서 먼 - 친척지표의 값을 뺀 차이값이다(“차이지표”라 부르기로 함). 일반적으로 먼 - 친척지표의 값이 클수록, 그리고 차이지표의 값이 작을수록 집단주의적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인과 요인을 통틀어 표현할 때는 “요인/변인”이라 표기할 것이다. 또한, 부산, 경상, 인제대 학생 및 노인의 네 집단을 의미할 때는 “학교/노인 집단”이라 표현할 것이다.

가족지표에서 집단간에 차이가 없을 때 먼 - 친척지표의 집단간 차이 패턴은 차이지표의 집단간 차이 패턴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먼 - 친척지표값이 타 집단보다 크면서 동시에 가족지표값 역시 타 집단보다 커서, 차이지표로는 타 집단과 비슷해질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단은 먼 - 친척지표로는 집단주의적으로 해석되나 차이지표로는 그렇지 못하게 된다. (2)반대로, 차이지표로는 집단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먼 - 친척지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먼 - 친척지표는 다른 집단과 비슷하나 가족지표가 타 집단보다 아주 낮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후자인 집단을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집단의 낮은 차이지표는 먼 - 친척지표가 큰 때문이 아니라 가족지표가 작은 데 기인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전자의 집단은 가깝고 먼 모든 혈족에 대하여 집단주의적인 경우이어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결론내리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3)전자의 집단과 비슷한 경우로서, 가족지표가 타 집단보다 유의하게 크면서 동시에 먼 - 친척지표는 더 현저하게 타 집단보다 커, 차이지표에 있어서도 타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마도 집단주의적 성향면에서 가장 철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¹²⁾ 상기한 여러 경우를 고려

할 때, 먼 - 친척지표에 기초한 해석과 차이지표에 의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먼 - 친척지표가 보다 신뢰로운 지표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각 요인/변인별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밝혀 둘 것이 있다. 그것은, 자율 방해와 투표 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변인의 결과에서 집단주의의 경향성이 여성보다 남성이 강하거나, 여성에서는 학교/노인 집단간 차이가 없고 남성에서만 학교/노인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요인/변인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성의 주효과 혹은 상호작용효과는 이러한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우리 나라의 혈연이 부계중심이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집단주의적이라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본 연구의 기본 가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요인 분석에서 동기 및 행동경향성 변인들은 각기 몇 가지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그런데 같은 요인에 속하는 변인들의 결과 패턴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한 요인에 속하는 변인들의 결과 패턴이 유사한 경우에는 요인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같은 요인 속의 변인들의 결과 패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인별로, 결과를 기술하기로 한다.

자아확장

자아확장의 세 지표에 대한 조건(학교/노인,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지표에서는 성별 및 학교/노인 집단별 차이가 없었다. 이원 변량분석 결과 두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먼 - 친척지표에 있어서는 학교/노인 집단간($F(3, 918)=3.40, p<.02$) 및 성별($F(1, 918)=20.98, p<.001$) 차이가 뚜렷했고,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즉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남녀 모두 노인 - 경상대생과 인제대생 - 부산대생의 순서로 먼 친척에 대한 자아확장의 경향성이 강했다. 먼 - 친척지표에서의 이러

운 혈연에 대한 반응간의 차이지표를 보다 변별력있게 포착하기 위하여 아주 가까운 혈연(가족)을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제한하였다.

12) 이 세 가지 결과 유형 중 둘째 유형에 해당되는 결과가 경상대생의 몇 요인/변인에서 발견되며, 첫째 및 셋째 유형은 노인(특히 할아버지)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된다.

표 4. 자아확장 변인의 집단별 평균(위) 및 표준편차(아래)

대상인물	경 상 대			인 제 대			부 산 대			노 인			전 체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가족	6.00	6.08	6.05	6.10	6.15	6.12	5.98	5.78	5.88	5.92	5.96	5.95	6.01	5.96	5.98
	1.30	1.07	1.17	1.08	1.07	1.07	1.25	1.46	1.36	1.51	1.53	1.52	1.26	1.32	1.29
오촌 이상	2.77	2.17	2.42	2.71	2.16	2.43	2.28	1.97	2.12	3.04	2.19	2.52	2.58	2.10	2.32
	2.03	1.58	1.79	1.76	1.77	1.79	1.77	1.74	1.76	1.92	1.89	1.94	1.85	1.74	1.81
차이	3.28	3.91	3.65	3.30	4.05	3.68	3.71	3.83	3.77	2.96	3.77	3.46	3.42	3.88	3.67
	1.93	1.60	1.77	1.81	1.44	1.67	1.61	1.58	1.59	1.76	1.58	1.69	1.76	1.55	1.67

한 조건간 차이는 차이지표의 조건간 차이에 반영되었다(성 주효과 $F(1, 845)=23.01, p<.001$;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3, 845)=2.02, p=.110$; 상호작용효과 $F(3, 845)=2.32, p<.08$).¹³⁾

노인들의 자료를 제외하고 대학생들만의 세 지표 자료를 각기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부산대 남학생들이 경상대와 인제대 남학생들보다 집단주의적 성향이 유의미하게 낮음이 확인되었다(먼 - 친척지표 $F(2, 362)=2.89, p<.06$; 차이지표 $F(2, 337)=2.42, p<.10$; 가족지표 $F<1$). 여학생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는 가족지표에 있어서 부산대 여학생이 낮고 인제대 여학생이 높은 점수인 것이 유의하였을 뿐($F(2, 366)=3.35, p<.04$) 먼 - 친척지표와 차이지표에 있어서는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모두 $F<1$).

자아확장 변인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예언대로, 자아확장의 정도가 노인 층에서 높고 부산대 학생에서 낮았다. 또한 경상대와 인제대 학생들은 부산대 학생들보다 집단주의적 자아확장의 성향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노인 집단간 차이는 여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집단주의적 자아확장의 성향이 남성보다 낮았다. 자아확장에 있어서, 경상대생과 부산대생의 차이는 드러났으나 경상대생과 인제대생간의 차이는 분명

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요인/변인들에서는 경상대생과 인제대생과의 차이도 분명히 드러난다.

집단주의 관련 동기

앞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집단주의 관련 동기 변인들은 “사회적 지지 욕구”와 “동일시를 통한 자존감 증진 욕구” 그리고 “자율성 방해”의 세 요인으로 나뉘고 집단구성원에 대한 의리 변인 문항들은 한 요인으로 묶이지 않음을 보았다. 각 요인과 그 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인들에서의 가족지표, 먼 - 친척지표 및 차이지표값들을 각기 4(학교/노인 집단)×2(성)의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노인과 경상대생이 부산대, 인제대생보다 더 집단주의적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 욕구 요인

표 5의 “사회적 지지 욕구” 요인의 가족지표에서는 남성의 점수가 더 커서 성차만이 유의할 뿐($F(1, 883)=7.23, p<.007$),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먼 - 친척지표에서는 성차($F(1, 918)=8.96, p<.003$) 뿐만 아니라 학교/노인 집단간 차이도 유의하여($F(3, 918)=4.99, p<.002$) 노인, 경상대생, 인제대생, 부산대생 순의 점수순위를 보였다. 이 학교/노인 집단간 차이는 남성에서 더 뚜렷하였다(상호작용효과 $F(3, 918)=2.28, p<.08$). 먼 - 친척지표의 이 결과는 차이지표 결과에 반영되었다(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집단간 주효과($F(3, 882)=4.32, p<.005$, 상호작용효과 $F(3, 882)=2.13, p<.10$).

가족지표에서는 부산대 및 인제대생과 비슷하나 먼 - 친척지표에서는 큰 값을(따라서 차이지표에서는 작

13) 각 변량분석에서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시켰으므로, 오차의 자유도가 변량분석에 따라 다르다. 먼-친척지표의 경우에는 “오촌 이상의 친척”과 “낯선 사람”이라는 두 문항의 응답만이 고려되지만, 가족지표에서는 네 문항, 차이지표에서는 다섯 문항이 고려되므로 가족지표와 차이지표에는 결측치가 더 많았다.

표 5. 사회적 지지 욕구 요인 및 관련 변인의 집단별 평균(위) 및 표준편차(아래)

요인/변인	대상인물	경 상 대			인 제 대			부 산 대			노 인			전 체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사랑 받음 (가)	가족	2.75	2.67	2.70	2.83	2.76	2.79	2.71	2.66	2.69	2.68	2.67	2.67	2.74	2.68	2.71
		.49	.54	.52	.38	.46	.42	.42	.64	.54	.52	.47	.49	.44	.55	.50
	오촌 이상	1.08	.75	.88	.89	.90	.89	.81	.76	.78	1.21	.88	1.01	.93	.81	.87
		.78	.80	.81	.84	.79	.81	.74	.80	.77	.78	.74	.77	.79	.79	.79
	차이	1.68	1.91	1.81	1.94	1.84	1.89	1.91	1.92	1.92	1.48	1.79	1.67	1.81	1.88	1.85
		.72	.70	.72	.84	.79	.82	.70	.82	.76	.64	.71	.70	.75	.77	.76
도움 받음 (나)	가족	2.64	2.59	2.61	2.71	2.66	2.69	2.67	2.57	2.62	2.87	2.63	2.72	2.70	2.60	2.65
		.55	.61	.59	.45	.49	.47	.44	.61	.54	.27	.55	.48	.45	.58	.52
	오촌 이상	1.00	.89	.93	.84	.77	.80	.70	.72	.71	1.09	.77	.90	.85	.78	.81
		.83	.78	.80	.75	.83	.79	.73	.81	.77	.72	.72	.74	.76	.79	.78
	차이	1.62	1.72	1.68	1.88	1.85	1.87	1.98	1.85	1.91	1.79	1.85	1.83	1.86	1.82	1.84
		.79	.73	.75	.78	.76	.77	.65	.81	.74	.67	.64	.65	.72	.75	.74
사회적지지 (가+나)	가족	2.71	2.63	2.66	2.77	2.71	2.74	2.69	2.61	2.65	2.77	2.65	2.70	2.73	2.64	2.68
		.45	.50	.48	.37	.43	.40	.39	.56	.49	.34	.45	.41	.39	.50	.45
	오촌 이상	1.04	.82	.91	.86	.83	.85	.76	.74	.75	1.15	.82	.95	.89	.80	.84
		.77	.70	.73	.69	.75	.72	.68	.70	.69	.65	.66	.67	.71	.71	.71
	차이	1.65	1.82	1.75	1.91	1.85	1.88	1.94	1.88	1.91	1.63	1.82	1.75	1.84	1.85	1.84
		.70	.64	.67	.73	.72	.73	.61	.74	.68	.55	.59	.58	.66	.69	.68

은 값을) 보여 집단주의적 경향성을 입증하는 이러한 결과 패턴은 경상대생의 경우 이 요인에 속하는 두 변인(즉 사랑받음의 기대와 관심/도움 기대의 두 변인)에서, 그리고 노인(할아버지)의 사랑받음 기대 변인에서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할아버지)의 관심 및 도움 기대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한 혈족주의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즉 먼 - 친척지표뿐만 아니라 가족지표 역시 유의하게 큰데, 먼 - 친척지표의 현저함 때문에 차이지표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관심/도움 기대변인의 가족지표는 성 주효과($F(1, 885)=9.07, p<.003$)와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3, 885)=2.52, p<.06$)가, 먼 - 친척지표는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3, 919)=4.83, p<.002$)와 성 주효과($F(1, 919)=4.76, p<.03$)가, 차이지표는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3, 884)=4.50, p<.004$)가 유의하였다).

동일시에 의한 자존감 증진 욕구 요인

동일시(반영)에 의한 자존감 증진 욕구 요인, 즉 내 집단 구성원의 성공 혹은 실수시에 그 타인에게 동일시하여 자부심 혹은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

두 변인의 결과는, 특히 노인의 경우, 서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변인별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표 6에서 보듯이, 가족이 성공했을 때 자부심을 느끼는 동일시 정도는, 예상과는 달리, 경상대생과 노인에서 낮았고(가족지표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 $F(3, 884)=3.42, p<.02$), 오촌 이상의 친척 성공시의 자부심 정도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먼 - 친척지표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세 효과 모두 $F<1$). 차이지표의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나($F(3, 883)=3.87, p<.01$), 차이지표의 이 결과는 순전히 노인과 경상대생의 낮은 가족지표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가족이 잘못했을 때의 동일시 정도는 경상대생에서는 여전히 아주 낮았으나, 노인에서는 거꾸로 아주 높았다($F(3, 885)=7.22, p<.001$). 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먼 - 친척지표에서는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3, 919)=6.57, p<.001$)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F(3, 919)=4.88, p<.002$). 이 상호작용효과는 먼 - 친척지표 점수가 여성에서는 네

표 6. 반영(동일시를 통한 자존감 증진) 요인 및 관련 변인의 집단별 평균(위) 및 표준편차(아래)

요인/변인	대상인물	경 상 대			인 제 대			부 산 대			노 인			전 체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성공 → 자부심 (가)	가족	2.43	2.52	2.48	2.58	2.73	2.65	2.71	2.62	2.66	2.54	2.57	2.55	2.60	2.61	2.61
		.87	.66	.75	.67	.50	.59	.53	.70	.63	.82	.93	.88	.69	.70	.70
	오촌 이상	1.33	1.28	1.30	1.30	1.27	1.29	1.26	1.23	1.24	1.34	1.38	1.37	1.29	1.28	1.28
		1.03	.85	.93	.96	.78	.87	.96	.88	.92	.92	1.05	1.00	.97	.88	.92
	차이	1.10	1.27	1.20	1.28	1.44	1.36	1.45	1.39	1.42	1.21	1.18	1.19	1.31	1.34	1.32
		.93	.86	.89	1.00	.77	.89	.91	.88	.90	.82	.82	.81	.93	.84	.89
잘못 → 수치심 (나)	가족	1.95	2.04	2.00	2.10	2.40	2.25	2.27	2.23	2.25	2.44	2.51	2.48	2.19	2.28	2.23
		1.12	1.08	1.10	.91	.84	.88	.84	.93	.89	.86	.88	.87	.93	.95	.94
	오촌 이상	1.14	.97	1.04	.79	1.19	1.00	.89	.93	.91	1.39	1.19	1.27	.98	1.05	1.02
		.90	.89	.90	.86	.87	.88	.82	.83	.82	.89	1.02	.97	.87	.89	.88
	차이	.81	1.07	.96	1.31	1.21	1.26	1.37	1.30	1.33	1.05	1.31	1.21	1.20	1.23	1.22
		.85	.97	.93	1.01	.93	.97	.82	.98	.90	.91	.84	.87	.91	.95	.93
동일시 통한 자존감 증진 (가+나)	가족	2.19	2.28	2.24	2.34	2.56	2.45	2.49	2.42	2.45	2.49	2.53	2.51	2.39	2.44	2.42
		.81	.69	.74	.62	.56	.60	.53	.65	.59	.70	.77	.74	.65	.67	.66
	오촌 이상	1.23	1.13	1.17	1.05	1.23	1.14	1.07	1.08	1.08	1.37	1.30	1.32	1.14	1.16	1.15
		.85	.72	.77	.80	.73	.77	.75	.71	.73	.80	.85	.83	.80	.74	.77
	차이	.95	1.17	1.08	1.30	1.33	1.31	1.41	1.34	1.37	1.13	1.23	1.19	1.25	1.28	1.27
		.76	.81	.79	.83	.74	.79	.73	.80	.76	.68	.69	.68	.77	.77	.77

집단간에 비슷한 패턴인 데 반하여 남성에서는 노인 (1.39), 경상대생(1.14), 부산대생(.89), 인제대생(.79) 순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 때문이었다. 노인들은 가족이나 먼 친척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 모두 강한 동일시를 체험하는데, 특히 할아버지들은 먼 친척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의 동일시가 아주 강하여, 차이지표의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3, 884)=7.71, p<.001$)와 상호작용효과($F(3, 884)=2.32, p<.08$)도 유의한, 철저한 집단주의 경향성을 보였다. 경상대 남학생의 결과는 가족지표가 낮은 반면 먼 - 친척지표가 두 다른 대학교 남학생에 비하여 아주 높은 양상이었는데(남학생만의 자료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가족지표 $p<.04$, 먼 - 친척지표 $p<.02$, 차이지표 $p<.001$), 이 중 먼 - 친척지표의 결과는 경상대생의 집단주의 경향성의 증거로서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1)내집단 구성원이 성공한 경우의 동일시에서는 본 연구의 예언에 부합되는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내집단 구성원이 잘못을 저지른 경

우의 동일시 정도에 있어서는 할아버지 집단의 철저한 가족 - 혈족주의 경향성이 밝혀졌으며, 경상대 남학생에서는 약한 지지증거를 얻을수 있었다. 경상대 학생들에서 가족의 성공 및 잘못 두 경우 모두 동일시 경향이 낮은 것은 의외의 결과이었는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 논의하기로 한다.

자율성 방해 요인

표 7에 의하면, 혈연 내집단 구성원과의 관계로 인한 자율성 방해 요인의 결과에서는 주로 성차가 두드러졌다. 가족으로 인한 자율성 방해는 여성들이 강하게 느끼고 있고($F(1, 885)=9.72, p<.002$), 그리고 인제대생들이 약하게 느끼고 있었다($F(3, 885)=2.22, p<.09$). 오촌 이상의 친척으로 인한 자율성 방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 보였다. 낯선 사람에 의한 자율성 방해보다도 낮은 평정치를 보여 표 7에 음수로 나타나 있으며, 변량분석결과 세 가지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F<1$). 따라서 가족지표의 결과가 차이지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성의 주효과 $F(1, 884)=11.83$,

표 7. 자율성 욕구 좌절 및 의리 지킴 변인의 집단별 평균(위) 및 표준편차(아래)

요인/변인	대상인물	경상대			인제대			부산대			노인			전체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자율성 방해받음	가족	.44	1.11	.82	.33	.40	.37	.56	.82	.69	.32	.86	.65	.45	.80	.63
		1.53	1.56	1.58	1.88	1.80	1.84	1.70	1.52	1.61	2.16	1.95	2.05	1.78	1.69	1.74
	오촌 이상	-.06	.03	-.01	-.02	-.09	-.06	-.15	-.08	-.11	-.21	-.06	-.12	-.11	-.05	-.08
		.84	.79	.81	.81	.82	.81	.70	.76	.73	1.07	1.01	1.03	.81	.83	.82
	차이	.50	1.08	.84	.34	.52	.43	.71	.87	.79	.51	.92	.76	.55	.85	.71
		1.20	1.24	1.25	1.49	1.44	1.46	1.33	1.33	1.33	1.45	1.36	1.41	1.37	1.35	1.37
의리지킴의 규범	가족	2.34	2.32	2.33	2.56	2.53	2.55	2.52	2.50	2.51	2.59	2.49	2.53	2.51	2.46	2.48
		.75	.75	.75	.62	.59	.61	.67	.62	.65	.56	.73	.67	.67	.67	.67
	오촌 이상	1.05	.84	.92	.95	.99	.97	.80	.83	.82	1.16	.89	.99	.94	.88	.91
		.88	.92	.91	.83	.87	.85	.85	.84	.84	.80	.85	.84	.85	.87	.86
	차이	1.29	1.51	1.42	1.61	1.51	1.56	1.73	1.67	1.70	1.43	1.60	1.54	1.57	1.59	1.58
		.85	.87	.87	.92	.81	.86	.88	.83	.86	.83	.85	.84	.89	.84	.86

$p<.001$;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 $F(3, 884)=3.62$, $p<.02$).

자율성 방해 요인에서는 경상대와 노인 집단이 부산, 인제대생과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전혀 없었다. 이 요인은 집단주의 성향과 관련하여 복잡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관하여서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의리지킴의 규범 변인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의리지킴 규범 문항들은 앞의 요인분석에서 하나의 요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하나의 변인으로 간주하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의리지킴 변인의 결과는 앞의 내집단 구성원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의 동일시 변인의 결과와 아주 흡사하였다. 먼저, 가족지표에서 경상대생의 점수가 아주 낮고 할아버지의 점수는(내집단 구성원 실수시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높은 점이 일치하였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주효과만 유의했다($F(3, 885)=4.51$, $p<.004$).

먼 - 친척지표에서 경상대 남학생과 할아버지들의 점수가 매우 높은 것 역시 같았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3, 919)=2.73$, $p<.05$)와 상호작용효과($F(1, 919)=1.80$, $p<.15$), 그리고 성 주효과($F(1, 919)=3.05$, $p<.09$)가 유의하였는데 이는 경상대 남학생과 할아버지들의 높은 평균 점수 때문이었

다. 표 7에서 보듯이, 여성에서는 점수가 비슷하지만(여성 자료만의 일원변량분석 $F<1$), 남성에서는 노인과 경상대생에서 높고 부산대생에서 특히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남성 자료만의 일원변량분석 결과 $F(3, 417)=3.34$, $p<.02$).

차이지표에서도 내집단 구성원 잘못시의 결과 패턴과 비슷한 양상이(위 두 지표의 결과에서 유사하므로 당연한 일이지만) 되풀이되었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3, 884)=5.15$, $p<.002$)와 상호작용효과($F(3, 884)=1.85$, $p<.14$)가 유의하였다. 이는 경상대 남학생과 할아버지들의 낮은 평균 점수, 즉 경상대 남학생과 할아버지들이 보다 집단주의적인 때문이었다. 여성 자료만의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으나($p>.3$), 남성 자료만의 일원변량분석 결과는 유의하였다($F(3, 410)=5.14$, $p<.002$).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의리지킴 규범 변인과 내집단 구성원 잘못시의 동일시 변인의 결과가 일치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뒤에 논의하기로 한다.

집단주의 행동경향성

집단주의 행동 관련 일곱 가지 변인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돈 빌려줌, 복권 탄 돈 나눔, 여행을 포기함, 일 도와줌의 네 변인은 “자기 희생” 요인으로, 그리고 서류 빨리 처리 해주기, 벌금 안 매기기의 두 변

인은 “내집단 편애” 요인으로 묶이고, “투표”는 단독 요인으로 남았다. 동기변인들의 자료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요인과 그 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인들에서의 가족지표, 먼 - 친척지표, 그리고 차이지표들을 각기 4(학교/노인 집단)×2(성)의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노인과 경상대생이 부산대, 인제대생보다 더 집단주의적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기 희생 요인

표 8에 제시된 “자기 희생” 요인의 네 변인을 통합한 “자기 희생 요인”의 가족지표 및 먼 - 친척지표에서는 할아버지 집단의 점수가 아주 큰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나머지 일곱 집단의 가족지표 점수는 2.31 - 2.43이었는데, 할아버지 집단의 가족지표 점수는 2.64이었다. 이원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주효과($F(3, 877)=4.80, p<.003$)와 성 주효과($F(1, 877)=7.37, p<.007$)가 유의하였다. 먼 - 친척지표에서도 할아버지

표 8. 자기 희생 요인 및 관련 변인의 집단별 평균(위) 및 표준편차(아래)

요인/변인	대상인물	경 상 대			인 제 대			부 산 대			노 인			전 체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돈 빌려줌 (가)	가족	2.44	2.37	2.40	2.35	2.38	2.36	2.46	2.40	2.43	2.73	2.47	2.57	2.47	2.40	2.43
		.72	.63	.67	.68	.61	.64	.61	.69	.65	.39	.79	.67	.64	.68	.66
	오촌 이상	.81	.67	.73	.65	.64	.64	.57	.58	.57	.82	.48	.61	.67	.59	.63
		.86	.66	.75	.70	.66	.68	.66	.67	.66	.74	.80	.79	.73	.69	.71
	차이	1.62	1.70	1.67	1.69	1.72	1.70	1.90	1.82	1.86	1.92	1.99	1.96	1.79	1.80	1.80
		.92	.65	.77	.80	.83	.82	.70	.74	.72	.72	.74	.73	.78	.75	.76
복권 탄 돈 나눠줌 (나)	가족	2.16	2.18	2.17	2.12	2.15	2.13	2.24	2.08	2.16	2.46	2.07	2.23	2.22	2.12	2.17
		.67	.67	.67	.81	.61	.71	.65	.66	.66	.54	1.03	.89	.69	.73	.72
	오촌 이상	.41	.32	.35	.35	.25	.30	.35	.22	.28	.55	.24	.36	.39	.25	.31
		.54	.57	.56	.67	.54	.61	.57	.56	.57	.76	.82	.81	.62	.61	.62
	차이	1.76	1.87	1.82	1.76	1.88	1.82	1.88	1.85	1.87	1.91	1.83	1.86	1.83	1.86	1.85
		.72	.68	.70	.79	.75	.77	.68	.65	.66	.79	.71	.74	.73	.69	.71
여행 포기 (다)	가족	2.29	2.40	2.35	2.46	2.34	2.40	2.52	2.34	2.43	2.57	2.54	2.55	2.47	2.39	2.43
		1.01	.73	.86	.69	.90	.80	.59	.65	.63	.89	.86	.87	.76	.77	.77
	오촌 이상	.61	.57	.58	.65	.47	.55	.59	.44	.51	.95	.63	.75	.66	.51	.58
		.74	.69	.71	.72	.69	.71	.70	.62	.66	.84	.83	.85	.74	.69	.72
	차이	1.68	1.81	1.76	1.81	1.85	1.83	1.93	1.90	1.91	1.62	1.91	1.80	1.81	1.87	1.84
		.99	.80	.88	.83	.85	.84	.76	.70	.73	.96	.84	.90	.86	.78	.82
일 도와줌 (라)	가족	2.50	2.39	2.44	2.47	2.39	2.43	2.50	2.40	2.45	2.81	2.59	2.68	2.54	2.43	2.48
		.71	.67	.69	.66	.61	.64	.57	.71	.64	.39	.67	.58	.61	.67	.65
	오촌 이상	.84	.61	.70	.62	.56	.59	.58	.55	.56	1.04	.70	.83	.70	.59	.64
		.85	.70	.77	.73	.78	.75	.70	.67	.69	.83	.80	.83	.77	.73	.75
	차이	1.66	1.78	1.73	1.84	1.76	1.80	1.93	1.85	1.89	1.77	1.89	1.84	1.83	1.82	1.83
		.84	.77	.80	.77	.77	.77	.75	.75	.75	.83	.87	.86	.79	.78	.78
자기 희생 (가+나+ 다+라)	가족	2.35	2.34	2.34	2.36	2.32	2.34	2.43	2.31	2.37	2.64	2.42	2.51	2.43	2.34	2.38
		.56	.52	.53	.52	.50	.51	.45	.55	.50	.36	.60	.53	.49	.54	.52
	오촌 이상	.66	.54	.59	.56	.48	.52	.52	.45	.48	.84	.51	.64	.60	.49	.54
		.58	.50	.54	.52	.51	.52	.52	.45	.49	.62	.58	.62	.55	.50	.53
	차이	1.68	1.79	1.74	1.78	1.81	1.79	1.91	1.86	1.88	1.81	1.91	1.87	1.82	1.84	1.83
		.68	.53	.60	.59	.63	.61	.53	.55	.54	.61	.54	.57	.59	.56	.58

집단이 특히 높고 경상대생들도 높은 편이었다. 이원
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주효과($F(3, 918)=5.43, p<.001$), 성 주효과($F(1, 918)=17.18, p<.001$), 및 상호작용효과($F(3, 918)=2.10, p<.10$)가 유의하였다. 경상대
생의 점수가 아주 높지 않아 대학생들만의 자료를 이
원변량분석한 결과, 다른 두 대학 학생들과의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학교 주효과($F(2, 776)=$
 $3.43, p<.04$; 성 주효과($F(1, 776)=6.15, p<.02$).

할아버지 집단은 가족지표와 먼-친척지표가 아주
높았지만 타 집단과의 차이가 두 지표에서 각기 비슷
하였기 때문에 차이지표에서는 타 집단과 비슷한 수
치를 보였다. 그러나 경상대생 집단은 가족지표에서
는 다른 두 대학생 집단과 비슷하였으므로 먼-친척
지표의 높은 점수는 차이지표의 낮은 점수로 반영되
었다($F(3, 876)=2.90, p<.04$).

경상대생이 가족지표에서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먼-친척지표에서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보다 높아 차이지표에서도 다른 두 대학생 집
단과 차이를 보이는 것, 그리고 노인(특히 할아버지)
들이 가족과 먼 친척 모두에 대한 회생 용의가 고루
높은(그래서 차이지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요약되는 이 결과 패턴은 자기 회생의
네 변인 중 돈 빌려줌, 및 일 도와줌의 두 변인에서
일치되게 나타났다. 여행 포기 변인에서는 노인 집단
의 경우, 가족지표와 먼-친척지표가 모두 높은데, 특
히 먼-친척지표가 현저하게 커서 차이지표도 유의하
였다(여행 포기 변인의 가족지표는 학교/노인 집단의
주효과만 유의하였으나($F(3, 884)=2.10, p<.10$), 먼-
친척지표는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3, 919)=4.92,$
 $p<.002$)와 성 주효과($F(1, 919)=11.93, p<.001$)가 유의
하였으며, 차이지표도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3,$
 $883)=2.10, p<.10$)와 성 주효과($F(1, 883)=3.45, p<.07$)
가 유의하였다.)

복권 당첨금 나눠주기 변인의 세 지표의 이원변량
분석 결과, 집단주의 경향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발견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들의 높은 가족지표 점수로 성
주효과($F(1, 883)=6.12, p<.02$)와 상호작용효과($F(3,$
 $883)=3.10, p<.03$)가 유의하였으나, 먼-친척지표에서

는 성 주효과만 유의($F(1, 918)=13.27, p<.001$)하였으
며, 차이지표에서는 세 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F
 <1). 이 변인은 우리의 집단주의 정도를 탐지하는 데
유용한 것이 못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나라에
서는 복권이 (미국인들보다는) 생활화되지 않아 측정
도구로서의 적실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집단 편애 요인

내집단 편애 요인은 급한 서류의 발급시 내집단 구
성원의 편의를 보아 주기와 내집단 구성원이 교통 법
규를 위반하였을 때 벌금을 부과하지 않음의 두 변인
이다. 표 9에 이 세 요인/변인의 조건별 가족지표, 먼
-친척지표, 및 차이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
되어 있다. 두 변인의 결과 패턴이 상이하므로 변인
별 결과를 기술하기로 한다.

교통법규 위반 벌금 부과 결정시의 내집단 편애 변
인의 세 지표 중 가족지표와 먼-친척지표의 변량분
석 결과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나(모두 $p>.2$),
차이지표 변량분석 결과에서는 학교/노인 집단 주효
과($F(3, 881)=2.67, p<.05$)와 성 주효과($F(1, 881)=4.21,$
 $p<.04$)가 유의하였다. 이는 경상대 남학생들이 가족지
표에서 약간 낮고 먼-친척지표에서 약간 높은 때문
이었다. 경상대 남학생의 이 결과 패턴은 집단주의
성향 입증을 위한 증거로서는 가장 미약한 것이다.

서류 발급시 내집단 편애 변인의 가족지표 변량분
석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며(세 효과 모두 $p>$
 $.20$) 먼-친척지표에서는 노인들(특히 할아버지)의 점
수가 높아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3, 919)=2.15, p<$
 $.10$)와 성 주효과($F(1, 919)=3.18, p<.08$)가 유의하였
다. 노인들은 가족지표의 점수도 높은 경향이어서 차
이지표의 변량분석에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세 효
과 모두 $p>.3$).

내집단 편애 요인 관련 두 변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교통법규 위반 벌금 부과 결정시의
내집단 편애 변인에서는 경상대 남학생의 집단주의적
성향에 관한 약한 증거가 차이지표에서 발견되며, (2)
서류 발급시의 내집단 편애 변인에서는 노인(특히 할
아버지)들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먼-친척지표에서 발
견된다.

표 9. 내집단 편애 요인 및 관련 변인의 집단별 평균(위) 및 표준편차(아래)

요인/변인	대상인물	경 상 대			인 제 대			부 산 대			노 인			전 체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서 류 (가)	가족	1.85	1.87	1.86	1.94	1.91	1.93	2.01	1.84	1.92	2.19	1.99	2.07	1.99	1.89	1.93
		1.07	1.07	1.07	.99	1.06	1.02	.99	1.05	1.02	1.14	1.15	1.14	1.03	1.07	1.05
	오촌 이상	1.06	1.00	1.03	1.03	1.02	1.02	1.05	.89	.97	1.36	1.09	1.19	1.09	.98	1.03
		1.03	.95	.98	1.04	1.02	1.03	1.00	.92	.96	1.10	1.12	1.12	1.03	.99	1.01
	차이	.77	.86	.82	.92	.87	.89	.95	.97	.96	.83	.90	.87	.89	.91	.90
		.92	.79	.85	1.02	.82	.92	.88	.87	.88	.90	.90	.90	.93	.85	.89
벌 금 (나)	가족	1.80	1.98	1.91	1.92	2.07	2.00	2.08	1.94	2.01	1.82	2.04	1.95	1.95	2.00	1.98
		1.20	1.15	1.17	1.14	.98	1.06	1.11	1.15	1.13	1.42	1.20	1.29	1.18	1.12	1.15
	오촌 이상	1.48	1.35	1.41	1.31	1.33	1.32	1.44	1.21	1.32	1.16	1.39	1.30	1.38	1.30	1.34
		1.16	1.16	1.16	1.15	1.02	1.08	1.16	1.04	1.10	1.29	1.31	1.30	1.18	1.11	1.14
	차이	.32	.62	.49	.60	.70	.65	.63	.74	.68	.65	.65	.65	.57	.69	.63
		.72	.84	.81	.97	.73	.86	.86	.89	.88	.96	.82	.87	.89	.83	.86
내집단편애 (가+나)	가족	1.84	1.93	1.89	1.93	1.99	1.96	2.05	1.89	1.97	2.00	2.01	2.00	1.97	1.94	1.96
		1.06	.93	.99	.95	.86	.90	.89	.94	.91	1.10	1.00	1.04	.97	.93	.95
	오촌 이상	1.27	1.18	1.22	1.17	1.17	1.17	1.24	1.05	1.14	1.25	1.24	1.25	1.23	1.14	1.18
		.99	.90	.94	.93	.87	.90	.93	.81	.88	.99	1.05	1.03	.95	.89	.92
	차이	.55	.74	.66	.76	.79	.78	.79	.85	.82	.74	.77	.76	.73	.80	.77
		.71	.71	.71	.83	.66	.75	.76	.79	.77	.83	.76	.78	.78	.74	.76
투 표	가족	1.77	2.19	2.01	1.58	2.15	1.87	1.97	2.11	2.04	2.34	2.30	2.32	1.88	2.17	2.04
		1.17	.94	1.06	1.28	.94	1.16	1.08	1.00	1.04	.90	1.00	.96	1.15	.97	1.07
	오촌 이상	1.15	1.20	1.18	.98	1.07	1.03	1.11	1.06	1.08	1.48	1.48	1.48	1.13	1.17	1.15
		1.16	1.07	1.10	1.08	1.16	1.12	1.13	1.07	1.10	1.08	1.28	1.20	1.12	1.14	1.13
	차이	.62	.96	.81	.62	1.05	.84	.86	1.04	.95	.85	.82	.83	.75	.99	.88
		.88	.94	.93	.92	.87	.92	.91	.94	.93	.82	1.02	.95	.90	.94	.93

투표

내집단 구성원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 내집단 구성원에게 투표하는 행동경향성은 노인들과 여성에서 더 높았다. 출마한 후보가 가족인 경우인 가족지표에서는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3, 883)=5.41, p<.001$)와 성 주효과($F(1, 883)=13.50, p<.001$) 이외에 상호작용효과($F(3, 883)=3.18, p<.03$) 역시 유의하였다. 이 상호작용 효과는 세 대학교 여학생의 점수(2.11 - 2.19)가 남학생(1.58 - 1.97)보다 높은 데 반하여, 노인에서는 남녀(2.30, 2.34) 차가 없는 데 기인한다.

먼 - 친척지표에서는 노인들의 점수(남녀 모두 1.48)가 대학생들(남 .98 - 1.15, 여 1.06 - 1.20)보다 월등히 높아 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만이 유의

하였다($F(3, 918)=5.36, p<.001$, 나머지 두 효과는 $F<1$).

노인들은 가족지표와 먼 - 친척지표에서 모두 비슷한 정도로 대학생들보다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차이 지표 변량분석에서는 학교/노인 집단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p=.20$). 성 주효과($F(1, 882)=12.28, p<.001$)와 상호작용효과($F(3, 882)=2.11, p<.10$)가 유의하였는데 이 두 효과는 가족지표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즉, 차이지표의 평균치가 남성(.75)이 여성(.99)보다 작는데, 이는 가족지표에서의 여학생의 높은 점수에 기인한 것이어서 남성의 집단주의 성향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 상호작용 효과 역시 여대생들이 먼 - 친척지표에서는 남학생과 다르지 않으나 가족지표에서는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갖는 것이 차이지표

에 반영된 것이다.

투표시의 내집단 편들기 변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노인들은 남녀 모두 가족이나 먼 친척 후보를 편드는 정도가 대학생보다 심하다. (2)먼 친척 후보에 대한 반응에서는 남녀 대학생간에 차이가 없으나, 가족 후보 편들기 성향에 있어서는 여대생이(노인보다는 약하지만) 남대생보다 강하다.

집단간 비교의 요약

지금까지 집단주의적 동기 변인 여섯 가지와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 일곱 가지, 그리고 자아확장 변인, 도합 열 네 가지 변인에서의 학교/노인 집단별 및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들 결과의 전반적인 특징은 (1)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투표는 예외), (2)특히 경상대 남학생과 할아버지들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현저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1)할아버지들은 매우 강한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자아확장, 내집단 구성원으로부터의 사랑 기대 변인에서는 가족지표는 타 집단과 비슷하고 먼 - 친척지표와 차이지표로서 집단주의 성향을 입증하고 있었으며, 내집단 구성원의 관심과 도움의 기대 변인, 내집단 구성원의 잘못시 동일시 변인, 의리지킴 변인, 여행 포기 변인, 돈 빌려줌 변인, 일 도와줌 변인, 그리고 서류 발급 및 투표시 내집단 편들기 변인에서는 가족지표와 먼 - 친척지표 두 가지 모두, 그리고 때로는 차이지표에서도, 타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철저한 집단주의(가족 - 혈족중심주의)를 나타냈다. 즉, 열 네 가지 변인 중 아홉 가지에서 할아버지들의 집단주의적 경향성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나머지 다섯 변인은 자율감 방해, 내집단 구성원 성공시의 동일시, 복권,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과 서류 발급시의 내집단 편애 변인이었다.

(2) 경상대 남학생의 집단주의적 성향은 주로 가족지표에서는 타 대학생들과 비슷하고 먼 - 친척지표 및 차이지표에서 집단주의적 경향성을 보이는 결과 유형으로 나타났다. 자아확장, 사랑받음 기대, 관심 및 도움 받음 기대, 내집단 구성원을 위한 자기 희생 요인의 관련 두 변인(돈 빌려 줌, 일 도와 줌)의 도합 다

섯 변인의 결과가 이 유형이었다. 경상대생은 때로는 가족에 대한 애착에 있어서 타 대학 학생들보다 낮은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먼 - 친척지표와 차이지표로서 충분히 집단주의 성향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족지표가 낮다는 단서가 붙어야 하는 결과 패턴이 특이하게 나타났는데, 내집단 구성원 잘못시의 동일시 변인과 내집단 구성원예의 의리 변인에서 그러하였다. 증거력에 있어서 가장 약한 결과 패턴은 가족지표 및 먼 - 친척지표에서의, 유의한 수준에는 달하지 못하는, 작은 차이가 모여 차이지표 상에서만 유의한 수준의 차이에 달하는 경우인데, 벌금 변인에서 이 유형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경상대생의 결과를 종합하면, 도합 여덟 가지 변인에서 경상대생(특히 남학생)들의 집단주의적 성향의 증거가 얻어진 셈이다.

(3) 부산대 학생들이 경상대생 혹은 노인들보다 집단주의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를 보인 요인/변인은 하나도 없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본 연구가 예상한 바와 잘 들어맞는 것이다.

공변량 구조분석

소도시 소재 대학생과 노인들이 대도시 대학생보다 더 집단주의적임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이 잘 밝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에서 집단주의의 경향성으로 묶여 취급되던 변인들을 동기적 변인과 행동경향성 변인으로 구분하고, 그 중간의 심리적 매개과정으로서 자아확장이라는 변인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동기→자아확장→행동경향성”이라는 이론적 모형이 집단주의라는 심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 제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프로그램¹⁴⁾을 사용하여 변인들간의 공변량 구조분석을 시도하였다.

14) AMOS 프로그램(Arbuckle, 1997)은 'SPSS for Window' 7.5버전에서 Lisrel 대신 사용하도록 새롭게 포함된 프로그램으로서 기본적으로 Lisrel과 같은 기능을 하는 통계 프로그램이다.

측정치 및 변인의 선택

본 연구에서는 자아확장, 집단주의 관련 동기,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의 세 가지 이론변인간의 관계가 일차적 관심사이다. 앞의 평균 비교 분석에서는 각 요인/변인의 먼 - 친척지표와 차이지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Amos 분석에서는 차이지표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차이지표가(“낯선 사람”을 제외하고) 네 개의 측정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어서, 하나의 측정치로 결정된 먼 - 친척지표보다 Amos 분석에서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이론변인 ‘동기’와 ‘행동’을 구성하는 요인들 역시 이론변인¹⁵⁾으로 취급하였다. 이론변인 ‘동기’는 ‘사회적 지지’와 ‘반영’(동일시를 통한 자존감 증진)의 두 이론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이론변인 중 ‘사회적 지지’는 ‘내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사랑받음의 기대’와 ‘내집단 구성원의 관심 및 도움 받음의 기대’의 각 차이지표를 측정변인으로 하여 결정되며, 또 하나의 이론변인 ‘반영’은 ‘내집단 구성원 성공시의 동일시’ 및 ‘내집단 구성원 잘못시의 동일시’의 각 차이지표를 측정변인으로 하여 결정된다. ‘내집단 구성원에게 의리지킴의 규범’과 ‘내집단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방해받음’의 두 변인은 공변량 구조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두 변인은 각기 하나의 측정변인만을 지표로 하여야 하는데, 한 이론변인이 하나의 측정변인만을 지표로 하여 결정되는 것은 공변량 구조 분석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순목, 1990)과 앞의 평균 차이 분석에서 이 변인들의 결과가 썩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두 변인을 각기 앞의 두 가지 동기 이론변인 중 어느 것의 측정변인으로서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합적하다. 그러나, ‘자율성 방해’는 두 동기 이론변인의 측정변인으로 채택된 네 가지와 상관이 매우 낮았으며($r=.09-.20$), ‘의리지킴’은 네 측정변인 모두와 상관이 고루 높아서($r=.40-.57$), 어느 쪽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였

다. 앞의 요인분석 결과(표 2)에서 이 두 변인의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패턴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론변인 ‘행동’은 ‘자기 희생’과 ‘내집단 편애’의 두 이론변인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이론변인 ‘행동’의 한 이론변인 ‘자기 희생’은 ‘돈 빌려 줌’, ‘복권 당첨금 나눔’, ‘일 도와 줌’, 그리고 ‘여행 포기’의 차이지표들을 측정변인으로 하여, 다른 한 이론변인인 ‘내집단 편애’는 ‘서류 발급’과 ‘벌금’, 그리고 ‘투표’의 세 차이지표들을 측정변인으로 하여 결정된다. ‘투표’는 앞의 요인분석(표 3)에서는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나, 한 측정변인만으로 한 이론변인을 결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투표’ 차이 지표와 가장 상관이 높은 것이 ‘서류 발급’과 ‘벌금’의 차이지표이어서(모두 $r=.39$) ‘내집단 편애’의 지표(측정변인)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투표’ 변인을 분석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결과가 유사함을 나중에 제시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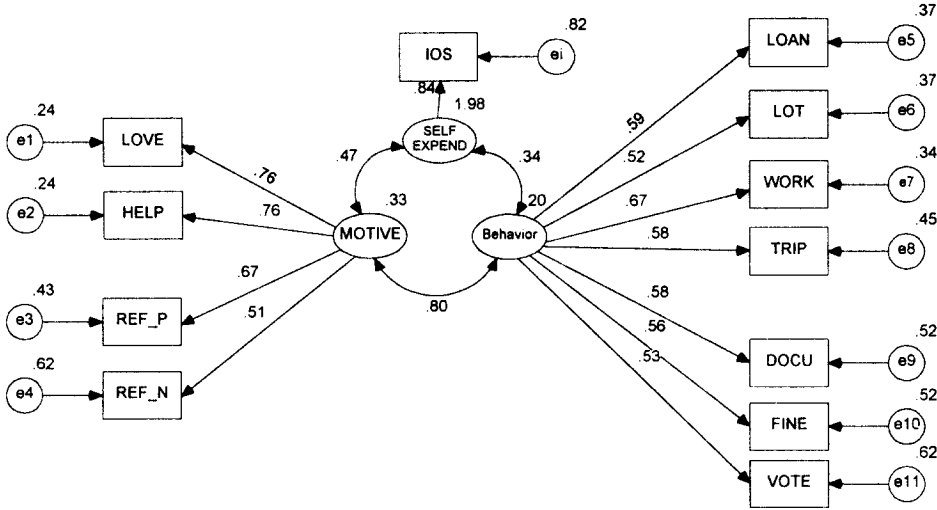
‘자아확장’은 하나의 이론변인을 하나의 측정변인이 대표하므로 Amos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썩 바람직스럽지가 않지만,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것이므로 분석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Amos 분석시 모든 측정변인 중 하나이라도 결측치가 있으면 곤란하므로, 한 변인이라도 결측치가 있는 자료는 모두 제외시켜 Amos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836명 분이었다.

요인분석 모형

공변량 구조분석을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하나의 경로 모형을 가설로 설정하고, 그 모형이 자료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각 경로의 계수가 충분히 큰지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Zajonc(1980)의 연구에서처럼, 한 모형이 아니라 주요 이론변인들로서 가능한 많은 모형 중 어느 것이 가장 자료에 부합되는지에 관심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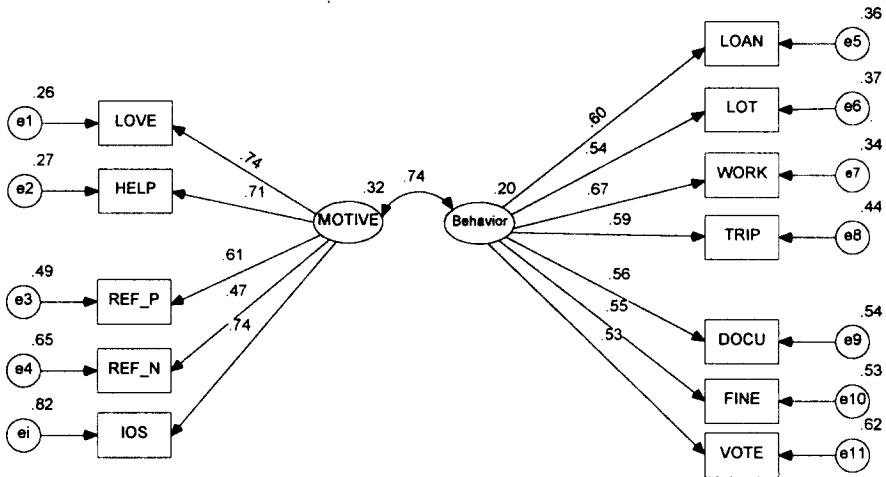
변인들간의 인과적인 경로 모형을 다루기 전에 먼저, 채택된 모든 변인을 하나의 요인(이론변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동기와 행동의 두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동기와 행동과 자아확장의 세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를 Amos 분석을 통

15) 공변량 구조분석에서 변인은 측정변인과 이론변인으로 나뉘는데, 측정변인은 자료에 수치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론변인은 측정변인에 의하여 추정되는 변인을 의미한다. 측정변인을 이론변인의 지표(indica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이순목, 1990, 참조 바람.



Chi-square (52 df)=401.746, RMR=.047, RMSEA=.090;
GFI=.908; AGFI=.863; NFI=.862; NNFI=.844

그림 3. 3요인 요인분석 모형의 Amos 분석 결과



chi-square (54 df)=944.345; RMR=.134; RMSEA=.141;
GFI=.792; AGFI=.699; NFI=.676; NNFI=.618

그림 4. IOS를 동기에 포함시킨 2요인 요인분석 모형의 Amos 분석 결과

- 주: 1. 부합성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각 부합도 지표의 범위는 $RMR < .05$, $RMSEA < .08$, $GFI > .9$, $AGFI > .9$, $NFI > .9$, $NNFI > .9$ (이순목, 1990; Hair 등, 1995).
2. 경로계수(path coefficient)는 표준화된 값임.
3. REF_P는 내집단 구성원의 성공시의 동일시(반영) 정도를, REF_N은 내집단 구성원 잘못시의 동일시 정도를 의미함.

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3은 채택된 열 두 변인 이 세 요인으로 분류되는 구조를 가진 것이라는 가설 다. 이 경우, Amos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의 의미를 갖는다. 그림 3, 4의

표 10. 요인분석 모형(1, 2, 3요인)의 Amos 분석 결과

모델 설명	$\chi^2(df)$	RMR	RMSEA	GFI	AGFI	NNFI	NFI	음수오차변량
1요인분석 자아확장 측정오차 지정	162.00 55	.158	.155	.717	.655	.602	.564	없음
2요인의 분석(자아확장은 동기에 포함) 자아확장 측정오차 지정	944.35 54	.134	.141	.792	.699	.676	.618	없음
2요인의 분석(자아확장은 행동에 포함) 자아확장 측정오차 지정	1053.61 54	.148	.149	.766	.662	.639	.572	없음
3요인분석 자아확장 측정오차 지정	401.75 52	.047	.090	.908	.863	.862	.844	없음
1요인분석 자아확장 측정오차 미지수로 둔	526.27 54	.050	1.02	.888	.838	.820	.798	없음
2요인분석(자아확장은 동기에 포함) 자아확장 측정오차 미지수로 둔	402.73 53	.047	.089	.908	.865	.862	.847	없음
2요인분석(자아확장은 행동에 포함) 자아확장 측정오차 미지수로 둔	432.25 53	.051	.093	.903	.858	.852	.834	없음
자료가 모형에 부합됨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	사례수 많아 적용 곤란	<.05	<.08	>.90	>.90	>.90	>.90	없음

* 이순목(1990)과 Hair 등(1995)에 따름.

Amos 분석 결과에서¹⁶⁾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이다(Lisrel분석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비표준화된 수치임). 열 두 가지 측정변인의 측정오차 모두를 미지수로 한 3요인 모형의 Amos 분석 결과에서 자아확장 측정변인 및 자아확장 이론변인의 측정오차가 不定(unidentified)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측정변인 자아확장의 측정오차를 기지수로 고정하였다. 즉, 측정변인 자아확장의 수값은 IOS 척도에서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및 오촌 이상의 친척에 대한 평정치(실제로는 각 평정치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평정치를 빼 것)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 네 평정치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알파를 구하여 그 값 0.82를 자아확장 측정변인의 측정오차로서 모델에 추가하였다.

표 10에는 1요인 모형과 두 가지의 2요인 모형(자

아확장 변인을 동기요인에 포함시킨 것과 행동요인에 포함시킨 것), 그리고 3요인 모형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는 또한 자아확장 측정변인의 측정오차를 미지수로 둔 1요인 모형 및 2요인 모형의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1요인 및 2요인의 요인분석 모형에서는 자아확장 측정변인의 측정오차가 미지수이어도 결과에 不定인 향이 발생하지 않았음.)

그림 3, 4, 5의 주 및 표 10, 11, 12에 제시된 부합성 판단범위는 이순목(1990)과 Hair, Anderson, Tathan, 및 Black(1995)에 따른 것으로, 모델이 자료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각 부합도 지표의 범위를 표시한 것이다. 이들 모형들과 앞으로 다룰 모형 모두 χ^2 지표에 있어서는 부합도 인정에 미치지 못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의 부합도 지표 중 가장 통계적 근거가 확실한 것은 χ^2 이지만 χ^2 지표는 사례수가 100에서 200 사이일 때 신뢰성이 있으며 사례수가 200보다 많으면 부합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고 한다(Hair 등, 1995). 공변량 구조분석 부합도 검증에서의 χ^2 지표의 해석은 χ^2 의 수치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즉 문제의 모형이 자료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야, 자료가 모형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되

16) 그림 3과 4에서의 화살표의 방향(“이론변인”->“측정변인”)은, 뒤에 언급할 χ^2 지표의 해석과 더불어, 공변량 구조분석의 결과에 처음 접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공변량 구조분석에 익숙지 않은 독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공변량 구조분석에서 ‘전반적 지능’이라는 이론변인이 ‘언어적 지능’과 ‘수리적 지능’이라는 두 요소를 갖는다고 할 때, 화살표 방향은 “전반적 지능”->“언어적 지능,” 그리고 “전반적 지능”->“수리적 지능”의 형태가 된다.

는 점에서 일반적인 차이검증시의 χ^2 의 해석과 거꾸로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사례수가 많으면 통계적 검증력이 커져서 사소한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되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 때문에 사례수가 많을 때 χ^2 지표는 적절한 지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본 연구의 Amos 분석은 83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어서 χ^2 지표로 부합도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 이외의 지표들은 각 지표의 통계적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으나(이기중, 1996), 사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한 지표에 의하지 않고 여러 지표의 경향성을 고려하면서 판단하면 믿을 만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이순목, 1990; Hair 등, 1995).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1-3요인의 요인분석 모형들은 부합도 면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인분석 모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료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은 3요인 모형과 자아확장이 동기요인에 포함된 2요인 모형(자아확장-측정변인의 측정오차를 미지수로 하는 경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이론변인의 경로 모형의 종류

앞의 분석 결과는 모든 측정변인들을 ‘동기’, ‘행동’, 및 ‘자아확장’의 세 이론변인으로 나누는 것이 모든 변인들을 하나 혹은 둘의 이론변인으로 나누는 것보다 더 자료에 부합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세 가지 이론변인의 구체적인 경로 관계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관심사이다. 그런데, 공변량 구조분석 결과에서의 동치모형 때문에, 세 가지 이론변인 사이의 관계를 공변량 구조분석으로 취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총 모형의 수는 여섯 가지가 된다.(한 화살표와 두 화살표가 섞인 관계(예컨대 “ $a \rightarrow b \leftarrow c$ ”)까지도 포함한다면, 세 변인간에 보다 많은 종류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화살표가 하나인 경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동치모형(equivalent model)이란 모형의 외형이, 그리고 화살표의 해석에 따라서는 모형의 의미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공변량 구조분석의 수리적인 이론상으로는 이것들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겠지만) 공변량

구조분석 결과가 동일한 모형들을 의미한다. $a \rightarrow b \leftarrow c$ 와 $a \leftarrow b \leftarrow c$, 그리고 $a \leftarrow b \rightarrow c$ 는 동치모형이다(이순목, 1990; Duncan, 1975). 화살표를 인과의 순서로 생각한다면, 위의 세 모형 중 앞의 둘은 엄청나게 다른,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두 모형의 공변량 구조분석 결과는 동일하다. a, b, c의 세 이론변인이 있을 때 이 세 이론변인이 이 위치 순서를 유지하며 만들 수 있는 외형상으로 다른 모형의 총수는 동치모형인 위 세 가지에 $a \rightarrow b \leftarrow c$ 가 추가된 네 가지이다. 달리 말하자면, 세 변인의 위치상의 순서를 고정한 채 그 변인들간의 관계를 한 화살표로 표현하여 결과가 다른 것은 하나의 동치모형군(즉 $a \leftarrow b \rightarrow c$, $a \rightarrow b \rightarrow c$, $a \leftarrow b \leftarrow c$)과 다른 한 모형($a \rightarrow b \leftarrow c$), 즉 두 가지인 셈이다. a, b, c의 순서에서 b를 가운데에 그대로 둔 채 a와 c의 위치를 바꾼 c, b, a 순서인 경우의 가능한 모형은 a, b, c의 순서인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세 변인 a, b, c로 가능한 모형의 총 가짓수는 a, b, 및 c가 각기 가운데에 있는 경우 각기 두 가지씩 이어서, 여섯 가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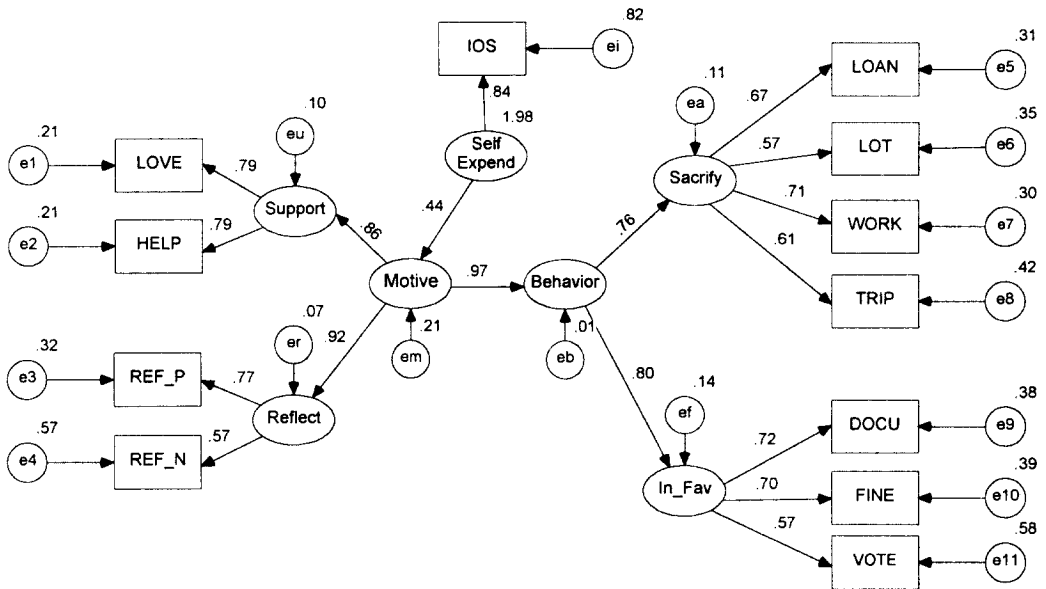
경로모형의 Amos 분석

따라서, 공변량 구조분석으로 세 가지 이론적 변인(즉 동기, 자아확장, 및 행동)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동치모형 세 가지 $a \rightarrow b \rightarrow c$, $a \leftarrow b \leftarrow c$, 및 $a \leftarrow b \rightarrow c$ 를 편의상 “ $a \leftarrow b \rightarrow c$ ”로서 대표하기로 한다면, ‘행동’이 가운데 있는 모형 두 가지 즉, (1)동기 $\leftarrow$ 행동 $\rightarrow$ 자아확장, (2)동기 $\rightarrow$ 행동 $\leftarrow$ 자아확장, ‘동기’가 가운데 있는 모형 두 가지 즉, (3)행동 $\leftarrow$ 동기 $\rightarrow$ 자아확장, (4)행동 $\rightarrow$ 동기 $\leftarrow$ 자아확장, 그리고 ‘자아확장’이 가운데 있는 모형 두 가지 즉, (5)행동 $\leftarrow$ 자아확장 $\rightarrow$ 동기, (6)행동 $\rightarrow$ 자아확장 $\leftarrow$ 동기, 이렇게 여섯 가지이다. 이 여섯 모형 중 어느 것도 본 연구의 가설, 즉 “동기가 자아확장의 원인이 되고, 자아확장으로 인하여 집단주의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입장을 결정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설인 “동기 $\rightarrow$ 자아확장 $\rightarrow$ 행동” 모형은 “동기 $\leftarrow$ 자아확장 $\leftarrow$ 행동” 및 “동기 $\leftarrow$ 자아확장 $\rightarrow$ 행동”과 동치관계이기 때문이다. 화살표를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관

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자료가 “동기→자아확장→행동” 모형에 부합된다면 동시에 같은 정도로 “동기←자아확장←행동” 모형에도 부합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Amos 분석 결과에서의 화살표의 의미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림 5에서 “자기 희생”에서 출발한 화살표는 “돈 빌려줌(LOAN)”, “복권 당첨금 나눠 줌(LOT)”, “일 도와줌(WORK)”, 및 “여행 포기(TRIP)”에 향하고 있다. 이 경우는 특히 “이론변인→측정변인”의 관계인데, 이때 화살표의 의미는 그 측정변인이 그 이론변인을 구성하는 한 요인으로서 그 이론변인의 지표가 된다는 것(확인적 요인분석의 의미)이다. 화살표의 이러한 의미는 이론변인끼리의 화살표에도 적용 가능하다. 즉 두 이론변인 a와 b간의 “a→b” 관계는 “a는 b의 지표이

다”와 “a는 b에 영향을 준다(a는 b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를 모두 의미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행동경향성→자기 희생”과 “행동경향성→내집단편애”로서 표현하려 하였던 것은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이 자기 희생과 내집단편애를 지표로 하여 결정된다는 것”이었으며, “동기→행동경향성”으로서 표현하려 하였던 것은 “동기가 행동경향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동치관계인 다른 모형이 존재할 때, 그 모형이 결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즉 이론변인들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공변량 구조분석 결과에 입각하여 결론으로 얻는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c 경로의 모델이 자료에 부합됨을 결과로 얻었다 할 때, 연구자가 a→b→c와 a←b←c의 경로는 자신의 이론상 부당하므로 무시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chi-square (49 df)=161.552; RMR=.037; RMSEA=.052; GFI=.968; AGFI=.949; NFI=.945; NNFI=.947

그림 5. ‘자아확장→동기→행동’ 경로 모형의 Amos 분석 결과

- 주: 1. 부합성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각 부합도 지표의 범위는 RMR<.05, RMSEA<.08, GFI>.9, AGFI>.9, NFI>.9, NNFI>.9 (이순목, 1990; Hair 등, 1995).
2. 경로계수(path coefficient)는 표준화된 값임.
3. REF_P는 내집단 구성원 성공시의 동일시(반영) 정도를, REF_N은 내집단 구성원 잘못시의 동일시 정도를, In_Fav는 내집단 편애를 의미함.
4. ‘자아확장←동기→행동’ 및 ‘자아확장←동기←행동’ 경로 모형과 동치관계임.

공변량 구조분석 결과에 의한 경로의 검증을 결론짓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이론변인들간의 어떤 경로도 옳을 가능성이 있다는 개방된 전제를 갖는다면, 하나의 경로가 검증되었다고 주장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모든 경로의 공변량 구조분석 결과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알아보고, 부합도가 높은 결과 모형을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으로 어떻게 설명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11은 여섯 가지 경로모형의 Amos 분석 결과의 부합도를 표로 만든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가 많아 χ^2 지표는 적절한 부합도 기준이 되지 못하지만 참고적으로 표에 포함시켰다. 공변량 구조분석의 부합도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여섯 가지 지표 이외에, 오차 변량 추정치 중 음수의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고려하였다. 변량은 이론적으로 음수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수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은 설정한 모형이 자료에 부합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한 가

지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앞의 요인분석 모형(표 10)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11에는 측정변인 자아확장의 오차변량을 .82로 고정시킨 분석과 더불어 그 측정오차 변량을 미지수로 두고 아울러 추가지수(modification index: 미지수를 추가할 때 모형의 부합성이 증가하는, 즉 χ^2 값이 감소하는, 정도; 이순목, 1990, Arbuckle, 1997, 참조)를 고려하여 “돈 빌려줌(LOAN)”과 “복권(LOT)”간, 그리고 “돈 빌려줌(LOAN)”과 “일(WORK)”간의 상관관계를 미지수로 추가한 모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표 11의 “수정 모형”). 수정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11에서 보듯이 부합도에 있어서 수정 전과 거의 일치하였다.

표 11에 의하면, 가장 만족스러운 모형은 “자아확장→동기→행동”, “자아확장←동기→행동”, 및 “자아확장←동기←행동”의 세 가지가 동치인 모형이다. “자아확장→행동→동기” 및 그것의 두 동치 모형은 여섯 가지 부합도 지표에 있어서는 양호하였으나, 오차변량 추정치 중 음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아확

표 11. 여섯 가지 경로 모형의 부합도 비교

모형 설명		$\chi^2(df)$	RMR	RMSEA	GFI	AGFI	NNFI	NFI	음수오차변량
자아확장←동기→행동; 자아확장→동기→행동; 자아확장←동기←행동	ei=.82로 고정	161.55 49	.037	.052	.968	.949	.945	.947	없음
	수정 모형 ^a	136.74 47	.036	.048	.972	.954	.953	.956	없음
자아확장→동기←행동	ei=.82로 고정	206.30 49	.083	.062	.961	.938	.929	.926	없음
	수정 모형 ^a	184.09 47	.083	.059	.965	.942	.937	.932	없음
자아확장→행동←동기	ei=.82로 고정	251.79 49	.103	.070	.953	.925	.914	.904	없음
	수정 모형 ^a	227.52 47	.107	.068	.958	.930	.922	.911	없음
자아확장←행동→동기; 자아확장→행동→동기; 자아확장←행동←동기	ei=.82로 고정	162.56 49	.038	.053	.968	.949	.944	.946	있음
	수정 모형 ^a	137.51 47	.036	.048	.973	.955	.953	.955	있음
동기←자아확장→행동; 동기→자아확장→행동; 동기←자아확장←행동	ei=.82로 고정	482.23 49	.101	.103	.918	.870	.835	.795	있음
	수정 모형 ^a	515.17 47	.119	.109	.921	.869	.823	.769	있음
동기→자아확장←행동	ei=.82로 고정	587.69 49	.146	.115	.912	.861	.799	.746	있음
	수정 모형 ^a	570.40 47	.145	.115	.916	.861	.804	.742	있음
자료가 모형에 부합됨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 ^b	사례수 많아 적용 곤란		<.05	<.08	>.90	>.90	>.90	>.90	없음

주: 굵은 체로 인쇄된 것은 부합도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함.

^a 수정 모형은 ei(측정변인 자아확장의 오차변량)를 미지수로 두고, 추가지수를 고려하여 LOAN과 LOT, 그리고 LOAN과 WORK간의 상관을 미지수로 추가한 것.

^b이순목(1990)과 Hair 등(1995)에 따름.

장→동기←행동” 모형과 “자아확장→행동←동기” 모형은 다른 부합도 기준에서는 양호하였지만, *RMR* 지표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패턴은 자료와 분석에 약간의 가감을 한 다른 두 분석에서도 거의 일치하였다. 표 12는 이 두 다른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한 가지는 앞의 요인분석 결과(표 2 참조)에서 “투표”가 내집단 편애 요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투표” 변인을 제외하고 분석한 것이다(측정변인 자아확장의 오차변량을 .82로 고정). 표 12에 의하면, “투표” 변인을 제외시키는 것이 모형의 부합도를 더 향상시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모형(“자아확장→동기←행동” 및 “자아확장→행동←동기”)의 경우에는 오히려 측정 오차 추정치를 음수가 되게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표 12에 제시된 다른 한 가지 분석에서는, (1)앞의 집단간 평균 비교 분석에서 “복권” 변인이 집단간 차이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복권” 변인을 “자기 희생” 요인에서 제외하고(“투표” 변인

은 포함시킴) (2)측정변인 자아확장의 오차 변량 추정치를 미지수로 하고 (3)추가지수를 고려, “돈 빌려줌(LOAN)”과 “일(WORK)”간의 상관관계를 미지수로 추가하였다. 표 12는 두 변형 모형의 결과 패턴이 표 11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해석

이상의 Amos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자료에 가장 부합되는 모형은 “자아확장→동기→행동; 자아확장←동기→행동; 자아확장←동기←행동”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에 제시한 이 모형에서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하였다(각기 $t > 8$, $p < .001$). 세 가지 동치모형의 두 화살표 각각을 인과관계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요인분석의 요인과 소속 변인 관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 모형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세 가지 모형으로 가능한 12가지 해석 중, 몇 가지 해석은 본 연구의 기본 입장을 지지하거나 혹은 수정케 하는 의미있는 암시를 하고 있다.

표 12. 여섯 가지 경로 모형의 부합도 비교(“투표” 혹은 “복권” 변인 제외시)

모형 설명		$\chi^2(df)$	<i>RMR</i>	<i>RMSEA</i>	<i>GFI</i>	<i>AGFI</i>	<i>NNFI</i>	<i>NFI</i>	음수오차변량
자아확장←동기→행동; 자아확장→동기→행동; 자아확장←동기←행동	“투표” 뻘	138.95 39	.037	.055	.969	.948	.948	.946	없음
	“복권” 뻘 ^a	126.06 38	.037	.053	.972	.952	.952	.951	없음
자아확장→동기←행동	“투표” 뻘	184.05 39	.067	.086	.962	.936	.931	.922	있음
	“복권” 뻘 ^a	168.72 38	.085	.064	.965	.940	.936	.927	없음
자아확장→행동←동기	“투표” 뻘	231.14 39	.109	.077	.953	.921	.913	.896	있음
	“복권” 뻘 ^a	215.71 38	.109	.075	.956	.924	.919	.901	없음
자아확장←행동→동기; 자아확장→행동→동기; 자아확장←행동←동기	“투표” 뻘	137.86 39	.037	.055	.970	.949	.948	.947	있음
	“복권” 뻘 ^a	125.96 38	.037	.053	.973	.953	.952	.951	있음
동기←자아확장→행동; 동기→자아확장→행동; 동기←자아확장←행동	“투표” 뻘	447.11 39	.100	.112	.917	.860	.832	.779	있음
	“복권” 뻘 ^a	508.99 38	.126	.122	.916	.854	.808	.737	있음
동기→자아확장←행동	“투표” 뻘	551.05 39	.145	.125	.911	.849	.793	.723	있음
	“복권” 뻘 ^a	560.74 38	.153	.128	.911	.845	.788	.708	있음
자료가 모형에 부합됨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 ^b	사례수 많아 적용 곤란		<.05	<.08	>.90	>.90	>.90	>.90	없음

주: 굵은 체로 인쇄된 것은 부합도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함.

^a 이 모형에서는 ei(측정변인 자아확장의 오차변량)를 미지수로 두고, 추가지수를 고려하여 LOAN과 WORK간의 상관을 미지수로 추가하였음.

^b 이순목(1990)과 Hair 등(1995)에 따름.

“자아확장→동기→행동” 모형은, 두 화살표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경우, 자아확장이 먼저 일어나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동기가 그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게 된다. 친척관계는 우리의 선택과 무관히 운명적으로 주어지고, 이 맺어진 친척관계는, 적어도 우리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정의의 일부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확장된 자아 속에 포함된 친척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동기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집단주의적인 행동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Tajfel(1970)의 최소집단간 상황 실험은 이 현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어떤 사소한 근거에서건 어떤 타인이 자신의 내집단 구성원으로 규정되면 그 규정 자체가 자아확장을 일으키고(Tajfel의 용어로는,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 자아확장이 내집단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적 욕구 충족을 동기화하고, 이 동기에 의하여 집단간 차별(혹은 본 연구에서처럼 집단주의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자아확장←동기→행동” 모형은 (1)“동기→자아확장”과 “동기→행동” 두 화살표를 모두 인과관계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2)“동기→자아확장”은 요인분석적으로, 그리고 “동기→행동”은 인과관계적으로 해석하는 두 안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전자는 동기가 자아확장과 행동에 각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기본 정신과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해석은 “자아확장←동기” 부분을 “사회적 지지←동기” 및 “반영←동기”와 동일한 위계로 취급하여, 사회적 지지와 반영처럼 자아확장도 동기의 지표(indicator)로서, 달리 말하자면 집단주의적 동기가 자아확장, 사회적 지지, 그리고 반영을 요소로 갖는 요인인 것으로 해석하고, 그 동기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미를 잡는 것이다. 이는 자아확장을 사회적 지지와 반영의 욕구 충족을 가능케 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자아확장을 하나의 동기로 보는 것이다. 이 해석은 ‘자아확장’을 동기의 일종으로 상정하였던 Aron과 Aron(1986)의 입장과 통하는 것이기도 하며, 자존감 욕구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동기를 하나의 큰 사회적 동기에 내포시키려는 최근의 몇 사회심리학자들의 입장(예컨대, Geen의 입장이나 Greenberg, Pyszczynski, 및 Solomon의 입장)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자아확장←동기←행동” 모형의 화살표 해석에 따른 네 가지 가능한 모형 이해 중 두 화살표를 모두 요인분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미있어 보인다. 자아확장이 동기의 한 지표인 점에서는 앞과 같으며, 동기는 또한 자기 희생이나 내집단 편애와 같은 수준의 하위 요인으로서 “행동”이라는 큰 요인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이 경우에는 “행동”보다는 “집단주의적 성향”이라는 포괄적인 요인 명칭이 더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앞의 1, 2, 3요인의 요인분석 모형의 분석 결과(그림 3, 4; 표 10)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변인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상정한 Amos 분석 결과는 부합도가 아주 낮았었다. 요인을 둘 혹은 셋으로 가정한 모형은 부합도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나, 보다 향상되었었다. 그런데, 그 요인분석은 반영, 사회적 지지, 자기 희생, 내집단 편애, 자아확장 등의 하위 요인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지금의 이 “자아확장←동기←행동” 모형에서는 하위 요인들을 설정한 점에서 앞의 요인분석 모형과 다르다. 지금의 이 결과는 부합도 면에서 앞의 요인분석 모형에 비하여 월등히 좋다. 이는 동기 변인들만을 요인분석하였을 때 반영과 사회적 지지 요인이(표 2), 그리고 행동 경향성 변인들만을 요인분석하였을 때 내집단 편애와 자기 희생 요인이(표 3) 추출된 점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런데, 표 2, 3의 요인분석은 각 변인별로 10가지 혈연 대상에 대한 측정치를 자료로 한 것이고, Amos 분석에서는 차이지표가 자료로 쓰인 것이어서 이 일치되는 결과는 투입된 자료상 당연히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에서 집단주의-개인주의를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온 측정도구들과 본 연구에서 추가한 몇 가지 척도들을 경상대, 부산대, 인제

대 학생 및 노인들에게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1)도시화 정도에 따른, 그리고 세대차에 따른, 집단주의 성향의 차이를 검증하고, (2)“동기 - 자아확장 - 행동”이라는 이론적 모형이 우리 나라의 집단주의를 설명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 대학교 학생과 노인의 네 집단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하였다.

(1) 여성보다 남성들의 집단주의 성향이 더 강하다.

18 가지 요인/변인의 먼 - 친척지표에서 여성 네 집단 중 어느 집단이 여덟 집단 중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인 경우는 없었으며, 18가지 요인/변인의 차이 지표 중 어느 여성 집단이 여덟 집단 중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인 경우도 역시 없었다. 이원변량분석 결과에서 성주효과가 유의한 경우, 항상 남성이 보다 집단주의적인 방향으로이었으며, 한 가지 예외는 가족(먼 친척은 아님)이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 그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동에 있어서만 여성의 평균점수가 남성보다 컸다(이 때도 여덟 집단 중 가장 높은 점수는 할아버지 집단의 것이었다). 여성은 집단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여성 네 집단의 자료만을 일원변량분석한 결과에서 10%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먼 - 친척지표의 경우 내집단 구성원 실수시 수치심뿐이었으며, 차이 지표에서는 자율성 방해와 돈 빌려주기의 두 변인뿐이었다. 반면 남성 네 집단의 자료만을 일원변량분석한 결과에서는 18가지 요인/변인 중 먼 - 친척지표에서는 13가지, 차이 지표에서는 14가지 요인/변인에서 10% 수준의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2) 가장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은 할아버지 집단이었다. 18가지 요인/변인의 먼 - 친척지표 중 14가지에서 할아버지 집단의 평균 점수가 여덟 집단 중 가장 컸으며, 두 가지에서는 두 번째로 큰 점수이었다. 할아버지 집단은 10가지 요인/변인의 가족지표에서도 가장 큰 점수이었다. 할아버지 집단은 가족지표도 높았으므로 차이 지표에서 두드러진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3) 경상대 남학생 집단은 할아버지 집단 다음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였다. 18가지 먼 - 친척지표 중

들은 가장 높은, 그리고 열은 할아버지 집단 다음으로 높은 점수이었다. 18가지 차이 지표 중 12가지에서 가장 점수가 낮고, 나머지 여섯 중 다섯 가지에서는 할아버지 집단 다음(그 중 한 가지는 할아버지 - 할머니 다음)으로 낮은 점수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우리나라의 혈연 중심의 집단주의가 근대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잘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중 동기를 측정하고자 제작된 설문지에서는 동기 정도 자체를 묻지 않았었다. 동기를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McClelland (1985)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된 동기는 보고자가 의식하는 자신의 동기의 정도일 뿐이며, 동기의 진정한 측정은 동기가 측정되고 있음을 모르는 중에 측정되는, 예컨대 투사법 같은,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변인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으므로 한 변인의 측정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투사법과 같은 방법을 취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해당 동기를 노골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간접적인 물음을 통하여, 즉 동일시 욕구 정도는 내 집단 구성원 성공, 잘못시 느끼는 자부심 혹은 수치심 정도를 답하게 하고, 사회적 지지 욕구의 정도는 사회적 지지(사랑받음과 도움/관심 받음)를 기대하는 정도를 묻는 방식을 택하였다. 동기 영역 중 의리지킴 변인은 Baumeister(1991)의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를 측정하고자 한 것인데, 목적에 잘 부응하는 것인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 중 내집단 편애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내집단 편애를 설문지를 통하여 탐지하고자 할 때, 정실주의라는 부정한 행위를 지지하는 응답으로 인식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관련된 두 설문지 중 벌금 부과 여부의 설문지에서는 “그 사람이 위반한 것은 비교적 경미한 것이어서 위반한 사람의 약 10%에게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경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는데, 이 문항에서의 결과가, 그러한 합리화의 구실을 제공하지 않은 “서류” 상황의 결과보다, 더 예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투표 행동 변인은 원래 내집단 편애의 한 측면을 측정하고자 포함되었는데, 이 변인의 결과는 다른 집단주의적 행동 경향성의 결과 양상과는 아주 달랐다. 선거에서의 집단주의적 행동은 우리 나라의 정치에서 해결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현실적 문제이다. 현재의 정치권에서 영호남의 지역대결이라고 부르는 것 이외에도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입각한 정치 행위는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 실태, 심리적 이유, 대처 방안 등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현상이 (혈연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그리고 노인 층에서 강함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지연, 학연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밝혀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경상대생에서 반영(동일시) 관련 변인에서의 가족 지표가 특히 낮은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이었다. 또한 노인들은 가족들의 잘못시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가 아주 강하였다. 내집단 구성원의 성공에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는 것은 본 연구의 주제를 넘어 심리학의 일반적 원리로서 오래 전부터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예, Adler, 1930).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동일시는 자신과 가까운 대상에게 더 강하다는 것 또한 Tesser(1986, 1988)의 자기평가 유지 모형(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SEM)의 증거들에 의하여 잘 확립된 사회심리학의 정설이다. 경상대생의 결과는 경상대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족들을 자존감 증진을 위한 동일시 대상으로 삼는 정도가 약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 등을 묻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경상대생은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가족을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시골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자존감 증진을 위한 가족에의 동일시 경향성,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가족에게 의리를 지킬 규범의 강도를 다른 집단보다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존감 증진을 위한 동일시 결과(표 6)는 Tesser의 자기 평가 유지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Tesser의 모형대로, 대상과의 동일시가 자존감 증진에 기여할 때 그 대상에게 강한 친밀감을 느끼고 동일시 또한 강하게 된다면, 대상 인물의 잘못시보다는 성공시에 더 강한 동일시를 느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6의 결과에서 가족 성공시의 자부심과 가족 잘못시의 수치심(낮선 사람에 대한 반응과의 차이)의 전체 평균은 각각 2.61 및 2.23으로, 가족 성공시의 자부심이 유의하게 더 컸다. 가족의 성공 상황과 잘못 상황을 한 요인(상황 요인)으로, 그리고 학교/노인 집단, 및 성을 다른 두 요인으로 한 $2 \times 4 \times 2$ 반복측정 삼원변량분석 결과 상황 요인의 주효과가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것은 일단 Tesser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변량분석 결과에서는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p < .001$), 그리고 상황 $\times$ 집단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하였다($p < .002$). 상황 $\times$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는 노인에서 가족 성공시의 동일시와 잘못시의 동일시간에 차이가 없는 데에 기인한 것이었다. 각 집단별 수치는 경상대생이 성공 상황 2.48, 잘못 상황 2.00, 인제대생은 각각 2.65와 2.25, 부산대생은 각각 2.66과 2.25, 노인은 각각 2.55와 2.48이었다(대학생들은 세 집단 각각 0.1% 수준의 차이, 노인은 $p > .3$). 이는 Tesser의 모형이 우리 나라 노인들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반응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비록 수치의 방향까지 Tesser 모형의 예언에 역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지표의 대상인 부모, 자녀, 배우자 중 노인들이 자녀의 잘못을 자신이 부모로서 교육을 잘 못 시킨 탓으로 여겨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가족 잘못시의 반응은 대상 인물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즉 세 대상에 걸쳐 가족 잘못시의 수치심 정도는 경상대생 1.96 - 2.03, 부산대생 2.19 - 2.35, 인제대생 2.23 - 2.29, 노인 2.40 - 2.54로서 노인은 항상 높았다.

노인들의 이 곤적곤적한 혈족중심주의는 먼 친척에게도 마찬가지이었다. 가족에의 결과와 비슷한 현상

이 먼 친척을 대상으로 한 반응에서도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듯이, 자부심과 수치심의 먼 - 친척지표 점수가 정상대생 1.30, 1.04, 인제대생 1.29, 1.00, 부산대생 1.24, 0.91, 노인 1.37, 1.27이었다(세 대학생 집단은 각기 0.1% 수준의 차이, 노인은 $F>1$). (반복측정 삼원변량분석 결과, 상황 주효과 $p<.001$, 집단 주효과 $p<.02$, 상황×집단 상호작용효과 $p<.04$ 이었다.) 요컨대, 노인들은 근본적으로 가족 및 먼 혈족들을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손해가 되면 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현상은 아주 강한 집단주의 경향성의 한 증거일 수도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율감 방해 욕구이다. Triandis를 비롯한 미국의 집단주의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는, 그리고 Aron의 자아확장에 관한 연구에서도 역시, 이 자율감 좌절을 한 변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자율감의 동기와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은 일견 서로 모순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Erich Fromm(1955)이 주장하듯이 인간의 욕구 중 어떤 것들은 보통의 경우 서로 접근 - 접근 갈등관계에 있다. 그 전형적인 것이, Fromm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소속의 욕구(Baumeister & Leary, 1995)와 자율의 욕구이다. 그렇지만 소속의 욕구(이 욕구는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 욕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와 자율의 욕구가 항상 갈등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율의 욕구는 정의상 타인의 관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적어도 순간적으로) 타인을 자신의 정의에서 배제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의 타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타인이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경우, 예컨대 신처럼 숭배하는 존재이거나 열애의 대상인 경우, 그 타인과의 유대, 그 타인의 자신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자신의 삶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그 타인에 대하여 자율의 욕구가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Murray(1938)는 이러한 욕구를 敬服의 욕구(need for deference)라 한 바 있다.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 중 '복종'이라는 유명한 시는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만약 어떤 내집단 자체, 혹은 어떤 내집단 구성원이 한 개인에게 아주 중요하다면 그 개인에게는 그 대상과의 유대를 불편하게 느끼는 '자율의 욕구 유발'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Aron의 연구를 비롯한 이전 연구에서,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율의 욕구 유발을 문제삼는 것은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율의 욕구 유발의 정도가 약할수록 그 대상과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예컨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처럼, 대상이 그 개인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는 아주 크면서도, 그 개인이 간헐적으로 그 대상에 기인한 자율의 욕구 유발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을 귀찮아 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자율의 욕구를 또 다른 각도에서 불필요성을 야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의 욕구는 Maslow(1968)가 의미하는 이른바 결핍욕구(deficit need)의 속성을 갖는 것 같기도 하다. 음식이나 물처럼 일정한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처럼 박탈상황에서만 강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싫고, 또한 무관심도 싫은 청소년들을 고려해 보면 이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자율감의 욕구는 집단주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존감이나 사회적 지지 욕구처럼 단순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보다 복잡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한 가지 설문지를 사용하여 그 복잡한 관계를 포착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 자율의 욕구는 집단간 차이에 있어서 설명 불가능한 결과 패턴을 보였다.

죽음 후의 무화에 대한 존재적 공포가 대학생보다 노인들에서 더 약하다는 것은 참으로 예상 밖의 결과이었다. 너무 심한 공포이어서 철저히 억압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간접적인 측정도구가 요구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Greenberg 등의 연구를 고려한다면, 전자가 더 옳을 것 같다. 최근 Greenberg, Pyszczynski 및

Solomon(1986; Arndt, 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 Simon, 1997; Harmon-Jones, Simon, Greenberg, Pyszczynski, Solomon, & McGregor, 1997; Solomon, Greenberg, & Pyszczynski, 1991)은 죽음을 의식(mortality salience)하게 되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범(immortality를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규범 혹은 세계관)에 보다 집착하게 되고, 그 규범에 비추어 자신을 팬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려는(즉 자존감을 높이려는) 경향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가설 하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죽음의 의식은 큰 공포를 유발하며, 그 공포를 억압하려는 강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 이들의 이론의 전제이다.

공변량 구조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인 “동기→자아확장→행동”의 경로보다는 “자아확장→동기→행동” 및 그것의 두 동치모형이 자료에 더 부합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세 동치모형의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모색되었다. 그 중 네 가지 해석이 특히 시사점이 크다. “자아확장→동기→행동” 모형의 두 화살표를 인과관계적으로 해석하여, 자아확장에 의하여 집단주의적 동기가 유발되고 그 동기 충족을 위하여 집단주의 행동이 표출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앞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동치 모형의 하나로서 “자아확장←동기←행동” 모형은 두 화살표를 모두 요인분석적으로 해석하여 ‘집단주의 행동 경향성’이라기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요인의 한 하위요인으로 “동기”가, 그리고 “동기”의 한 하위요인으로 “자아확장”이 포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 동치모형인 “자아확장←동기→행동” 모형은 동기가 자아확장과 행동에 각기 영향을 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동기”가 “반영” 및 “사회적 지지” 이외에 이 둘과 같은 수준의 하위요인으로서 “자아확장”을 내포하고, 이 “동기”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기”와 “자아확장”간의 관계가 위의 네 해석 중 둘에서는 요인분석적인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두 해석에서는 인과관계로 해석되었는데, 인과관계 해석 중 하나는 “동기”가 “자아확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자아확장←동기→행동” 모형), 다른 하나는 “자아

확장”이 “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아확장→동기→행동” 모형). 자아확장과 동기의 인과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최소 집단간 상황에서 ‘내집단 정보→자아확장→동기→행동’의 과정이 가능함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내집단 구성원의 속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현실 생활에 있어서는 내집단이 동기 충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아확장의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집단 구성원 성공, 잘못시의 경상대생의 반응을 논의할 때 이미 언급하였듯이, 내집단 구성원이 자신의 욕구 충족에 큰 기여를 하리라 여겨질 때, 우리는 그 내집단을 자신의 정의 속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그림 5의 모형을 “자아확장”과 “동기”가 상호 영향관계(동기→←자아확장)를 갖는 모형으로 수정하여 Amos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不定의 향이 발생하여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자아확장←동기→행동” 모형에서 “자아확장←동기”를 요인분석적으로(“동기→행동”은 인과관계로) 보는 해석은 큰 하나의 사회적 동기가 집단주의적 행동의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사회행동의) 원인이 되리라는 최근의 몇 이론에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Geen(1991, 1995)은 사회적 배척(social rejection)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 즉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욕구가 우리의 대부분의 사회적 행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적 촉진 및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에 관한 이전 실험결과를 정리하면서, 그 현상들이 평가걱정, 즉 자존감 욕구 때문이라는 결론에 달하고, 나아가서 자존감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배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고 추론한다. Geen의 주장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관한 Baumeister의 오랜 연구, 즉 자존감 욕구의 중요성과 최근의 소속욕구의 강조와 궤를 같이 한다. 또한 Greenberg 등(1986)은 죽음, 무화(non-being)의 공포가 자존감을 비롯한 사회적 욕구의 뿌리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확장←동기”를 요인분석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때의 “동기”는 사회적 지지, 자존감(반영), 자아확장을 포

합하는 것으로서, Geen이나 Baumeister가 주장하는 넓은 의미의 소속(혹은 사회적 포함)의 동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⁷⁾ 본 연구의 공변량 구조분석은 이론변인 자아확장을 하나의 측정변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큰 이론적 문제의 답을 얻기에는 결과의 신뢰성을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자아확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적 모색이 앞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몇 가지 변인의 측정도구들은 썩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지만 결과는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이었다. 이론바 개인주의-집단주의라는 현상에 주목한 초기 연구들은 신비한 문화차이의 발견이라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이제는 그 문화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황적 변인, 그리고 그 상황(혹은 문화적 환경)의 어떤 측면 때문에 개인주의적(혹은 집단주의적) 행동이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밝힐 단계에 온 것 같다.

집단주의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 특히 동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자기-낮추기 욕구(self-effacing motive)¹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일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 그러나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 외현적 행동 관찰을 자기-낮추기 욕구에 연계시키는 것은, 자존감 욕구가 인간에게 참으로 피할 수 없는 욕구(Baumeister, 1991)라는 우리의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주 강력한 증거의 제시 없이는 수긍하기 힘들다. self-handicapping이 자존감 유지를 위한 행동(Baumeister, 1998)인 것처럼, 일본인들의 자기-낮추기 행동도,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더 존경받는다는 규범을

고려한다면, 자존감 유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회는 왜 그러한 규범이 강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상황적 변인의 탐색, 그러한 그 상황적 변인의 심리적 의미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Kitayama, Markus, Matsumoto, 및 Norasakkunkit(1997), 그리고 Heine와 Lehman(1997)은 자기 낮추기 '욕구'가 일본인에게 존재한다는 입장을 포기하고, 일본의 역사적 조건(불교와 유교적 전통)에 기인한 규범에 따르려는 일본인의 합목적적인 행동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동양 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 사회는 한번 맺어진 인연이 오래 가고 쉽게 단절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주 특이한 사회는 미국 사회일 것이다. 서부에 살다가 쉽게 동부로 이주하여 살고, 전혀 모르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이러한 조건에서는 피차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겸손이라는 미덕으로 숨길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미국인들에게는 겸손의 미덕이 없는가?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도 겸손이 미덕이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미국인에게도 겸손이 미덕인 그러한 상황적 조건이 미국 이외의 문화권에서는 보다 일상화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개인주의-집단주의의 상황적, 동기적 이해는 개인주의-집단주의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사회심리학적으로 가치있는 인간 심리의 보편적 원리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개인주의-집단주의 연구자들은 집단주의가 존재하게 된 동기적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입증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가설을 "미국=개인, 동양=집단"이라는 공소한 등식에 입각하여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 듯 보인다. 일부 서양인들은 동양에 관하여 지나친 신비론에 빠지

17) Greenberg 등(1986)의 주장은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죽음에 대한 존재적 불안 점수 혹은 죽음의 불안 전체 점수와 본 연구의 각 동기 요인/변인들의 점수간의 상관은 아주 낮았다(모두 $r < .1$). 죽음과 무화 공포가 많은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하여는 본 연구자도 인정하지만, 자존감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적 욕구의 기저를 이룬다는 주장은(그리고 어쩌면 Geen의 주장도) 인간의 모든 행동/심리현상을 생리적 욕구나 성적 욕구로 환원하려던 옛 동기이론의 우를 답습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18) 이것이 자신의 본심을 잘 안 드러내는 일본인 특유의 '자기-숨기기' 행동 방식을 의미하는지, '자기-낮추기'를 의미하는지는 애매하다. 그러나, 이 개념이 항상 개인주의 사회의 자기 고양 동기(self-enhancing motive)와 대조하여 언급되므로, '자기-낮추기'를 내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아시아인(극동인)에게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들이 제시하는 것은 일본인의 자료뿐이다.

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듣는다. 그 서양의 동양 신비론자들이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그 “신비” 속에 살고 있는 동양의 심리학자들이 그 신비를 빨리 해독해 주어야 할 것 같다.

본 연구는 한국의 집단주의적 경향성에 대한 실제적 모습에 보다 근접된 정보를 얻은 것을 한 의의로 삼을 수 있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한국의 가족, 혈연 연고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역기능이 있다 할 때, 그러한 역기능을 없애는 것을 도덕 교과서처럼 주장하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가족, 혈연 연고주의는 그것이 유지될 만한 동기적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역기능을 없애는 것은 그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의 모색과 함께 궁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론적 모형은 집단간 차별 행동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집단간 차별현상인 지역감정의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이론적 연구를 폭넓은 시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 이론은 현재 집단간 차별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학적 이론이기는 하지만, 자존감 이외의 다른 사회적 동기를 무시하고 있다. 이미 한국심리학회와 관심속에 많은 우리 사회심리학자들(김진국, 1988; 김혜숙, 1988; 민경환, 1988; 안신호, 1988; 이수원, 1988; 이진환, 1988)의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감정의 보다 심층적인 원인이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그 원인에 근거한 대책 모색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는 앞으로 한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겠는데, 본 연구의 포괄적 모형이 이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론적 모형은 이타행동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Batson(1998)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론 모형(자아확장이 이타행동의 원인일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이론적 가능성들을 앞으로 이타행동 연구에서 추구할 연구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타행동, 집단주의, 집단 차별(내집단 편애) 등을 자아확장이라

는 공통된 매개과정을 가진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분명히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아확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각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최근 Brewer와 Gardner(1996), Baumeister와 Leary(1995), Smith와 Henry(1996), 그리고 Tropp과 Wright(1995)에 의하여 시작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진국(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221-254). 서울: 성원사.
-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123-169). 서울: 성원사.
- 민경환(1988). 집단간 갈등: 그 병리의 이해와 처방.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91-121). 서울: 성원사.
- 안신호(1982). 비애와 이타행동. (부산대) 사회과학논총, 1, 301-330.
- 안신호(1983). 비애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신호(1986). 이타행동에 관한 일 고찰. (부산대) 사회과학논총, 5, 235-257.
- 안신호(1988). 집단고정관념 형성에 있어서의 감정과 인지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15-65). 서울: 성원사.
- 안신호(1997). 직장인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 김명연과 박영석, 편, 한국 기업문화의 이해(pp.388-439). 서울: 오름 시스템.
- 이기종(1996). 일반 사용자들에게 구조방정식모형은 과연 강력한 무기인가?: 잘못된 무기사용 실례와 그에 대한 비평. 교육평가연구, 9(2), 43-58.
- 이수원(1988). 집단고정관념의 변화.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67-89). 서울: 성원사.
- 이순목(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진환(1988). 부산지역인의 타지역인에 대한 인상 및

- 태도.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pp.171-220). 서울: 성원사.
- 조금호(1993). 대인평가의 문화적 차이: 대인평가 이원 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 7권 1호, 124-149.
- 조은경(1994). 사회심리학의 최근 동향: 동기와 정서의 복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연구의 최근 동향. (pp.39-82).
- 차재호·정지원(1993).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7권 1호, 150-163.
- 한규석(1991). 집단주의 - 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10권 1호, 1-19.
- Adler, A.(1930). Individual psychology. In C. Murchison(Ed.), *Psychology of 1930*.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Press.
-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 Addison Wesley.
- Arbuckle, J. L.(1997). *Amos user's guide version 3.6*. Chicago: SmallWaters Corporation.
- Arndt, J.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 Simon, L.(1997). Suppression, accessibility of death-related thoughts and cultural worldview defense: Exploring the psychodynamics of terror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18.
- Aron, A., & Aron, E. N.(1986). *Love and the expansion of self: Understanding attrac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Hemisphere.
- Aron, A., Aron, E. N., & Smollan, D.(1992).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96-612.
- Aron, A., Aron, E. N., Tudor, M., & Nelson, G. (1991). Close relationships as including other i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41-253.
- Batson, C. D.(1998).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2.(pp.282-316). New York: McGraw-Hill.
- Batson, C. D., Batson, J. R., Todd, M., Brummett, B. H., Shaw, L. L., Aldeguer, C. M. R.(1995). Empathy and the collective good: Caring for one of the others in a social dilem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19-631.
- Batson, C. D., Duncan, B., Ackermann P., Buckley, T., & Birch, K.(1981). Is empath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292-302.
- Batson, C. D., Klein, T. R., Highberger, L., & Shaw, L. L.(1995). Immorality from empathy-induced altruism: When compassion and justice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042-1054.
- Batson, C. D., & Ventis, W. L.(1982). *The religious experience: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eister, R. F.(1988). The problem of life's meaning. In D. M. Buss & N. Cantor(Eds.), *Personality Psychology: Recent trends and emerging directions*(pp.138-148). New York: Verlag.
- Baumeister, R. F.(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Guilford.
- Baumeister, R. F.(1998). The self.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 1.(pp.680-740). New York: McGraw-Hill.
- Baumeister, R. F., & Leary, M. R.(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rkowitz, L.(1972). Social norms, feelings, and other factors affecting helping behavior and altruism.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 social psychology*(Vol.6, pp.63-108). New York: Academic Press.
- Berlyne, D. E.(1973). The vicissitudes of aplopathmetic and thelomatoscopic pneumatology(or the hydrogrphy of hedonism). In D. E. Berlyne & K. B. Madson(Eds.), *Pleasure, reward, and preference*(pp.1-33). New York: Academic Press.
- Brewer, M. B., & Gardner, W.(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3-93.
- Buss, D. M., & Cantor, N.(Eds.).(1988). *Personality Psychology: Recent trends and emerging directions*. New York: Verlag.
- Cialdini, R. B., Borden, R. J., Thorne, A., Walker, M. R., Freeman, S., & Sloan, L. R.(1976). Basking in reflected glory: Three(football) fiel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366-375.
- Cialdini, R. B., Darby, B. L., & Vincent, J. E.(1973). Transgression and altruism: A case for hedon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 502-516.
- Cialdini, R. B., & Kenrick, D. T.(1976). Altruism as hedonism: A social development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of negative mood state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907-914.
- Coke, J. S., Batson, C. D., & McDavis, K.(1978). Empathic meditation of helping: A two stag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52-766.
- Conte, H. R., Weiner, M. B., & Plutchik, R.(1982). Measuring death anxiety: Conceptual, psychometric, and factor-analytic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775-785.
- Cousins, S. D.(1989). Culture and selfhood in Japan and the U. 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24-131.
- Crocker, J., & Luhtanen, R.(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0-67.
- Darley, J. M., & Latane, B.(1968). Bystander intervention in emergencies: Diffus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 377-383.
- Davis, M. H., Conklin, L., Smith, A., & Luce, C. (1996). Effect of perspective taking on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rsons: A merging of self and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13-726.
- Deci, E. L.(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uncan, O. D.(1975). *Introduction to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 York: Academic Press.
- Fiske, S. T., & Taylor, S. E.(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 Fromm, E.(1955). *The same socie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Geen, R. G.(1991). Social motiv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2, 377-399.
- Geen, R. G.(1995). Social motivation. In B. Parkinson & A. M. Colman(Eds.), *Emotion and motivation*. New York: Longman.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1986).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In R. F. Baumeister(Ed.),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pp.189-212). New York: Springer-Verlag.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4th ed.). NJ: Prentice Hall.
- Harmon-Jones, E., Simon, L., Greenberg, J., Pyszczynski,

- ski, T., Solomon, S., & McGregor, H.(1997). Terror management theory and self-esteem: Evidence that increased self-esteem reduces mortality salience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4-36.
- Heine, S. J., & Lehman, D. R.(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68-1283.
- Higgins, E. T., & Sorrentino, R. M.(Eds.)(1990).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2nd ed.). New York: Guilford.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차재호 · 나은영 역(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Hofstede, G., & Bond, M. H.(1984). Hofstede's culture dimensions: An independent validation using Rokeach's Value Surve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5, 417-433.
- Kim, U., Triandis, H. C., Kagitcibasi, C., Choi, S. C., & Yoon, J.(Eds.)(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 Beverly Hills, CA: Sage.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Norakunkit, V.(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Langer, E. J.(1975).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311-328.
- Markus, H., & Cross, S.(1990). The interpersonal self. In L. A. Pervin(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ies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 Markus, H., & Kitayama, S.(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 Zajonc, R. B.(1985). The cognitive perspective in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 E. Aronson(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1. Theory and method*(3rd ed., pp.137-230). New York: Random House.
- Maslow, A. H.(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Van Nostrand.
- Maslow, A. 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McClelland, D. C.(1985). *Human motivation*. Glenview, Ill.: Scott, Foresman and Company.
- Murray, H. A.(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akes, P., & Turner, J. C.(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Does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make social identity more posi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295-301.
- Pervin, L. A.(Ed.)(1989). *Goal concepts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 Piliavin, I. M., Dovidio, J. F., Gaertner, S. L., & Clark, R. D. III(1981). *Emergency interven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Piliavin, J. A., & Piliavin, I. M.(1973). The good Samaritan: Why does he help?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Rhee, E., Uleman, J. S., Lee, H. K., & Roman, R. J. (1995). Spontaneous self-descriptions and ethnic identitie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42-152.
- Smith, E. R., & Henry, S.(1996). An in-group becomes part of the self: Response time evi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635-642.

- Solomon, S., Greenberg, J., & Pyszczynski, T.(1991). A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ocial behavior: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elf-esteem and cultural worldviews.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4, pp.91-159). New York: Academic Press.
- Sorrentino, R. M., & Higgins, E. T.(Eds.).(1986).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New York: Guilford.
- Tajfel, H.(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5), 96-102.
- Tajfel, H.(1981). *Human group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jfel, H.(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Turner, J. C.(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33-48). Monterey, CA: Brooks/Cole.
- Tajfel, H., & Turner, J. C.(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el & W. G. Austin(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nd ed., pp.7-24). Chicago: Nelson-Hall
- Tesser, A.(1986). Some effects of self-evaluation maintenance on cognition and ac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pp.435-464). New York: Guilford.
- Tesser, A.(1988).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21, pp.181-227). New York: Academic Press.
- Tesser, A., & Campbell, J.(1980). Self-definition: The impact of the relative performance and similarity of other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 341-347.
- Tesser, A., & Campbell, J.(1982). Self-evaluation maintenance and the perception of friends and strangers. *Journal of Personality*, 59, 261-279.
- Toi, M., & Batson, C. D.(1982). More evidence that empathy is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281-292.
- Trafimow, D., Triandis, H. C., & Goto, S.(1991). Some test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collectiv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49-655.
- Triandis, H. C.(1989a).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Berman(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Cross-cultural perspectives*(pp.41-133).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1989b).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1985). Allocentric versu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Tropp, L. R., & Wright, S. C.(1995). Inclusion of in-

- group in the self: Adapting Aron & Aron's IOS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New York.
- Turner, J. C.(1975).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identity: Some prospects for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5-34.
- Turner, J. C.(1982). Towards a cognitive redefinition of the social group. In H. Tajfel(Ed.), *Social psychology and intergroup relations*(pp.15-40).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 C., Brown, R. J., & Tajfel, H.(1979). Social comparison and group interest in ingroup favorit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 187-204.
- White, R. W.(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 Zajonc, R. B.(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 Zuckerman, M.(1979). *Sensation seeking: Beyond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J: Erlbaum.

A Test of "Motivation-Self-Expansion-Behavior" Model: Collectivism in Korea

Shin-Ho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I proposed a model that altruism, ingroup favoritism, and collectivism should be mediated by the process of self-expansion. Self-expansion, which means inclusion of others into one's self-definition, is supposed to occur to satisfy such social motivations as needs for interpersonal support, self-worth, and (especially in the collectivism of Koreans) escape from the fear of non-being after death. Korean students from three colleges and elder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measuring (a)self-expansion(Aron-Aron's IOS Scale), (b)expectations for social supports of others, (c)identification(reflection) to others, (d)collectivistic behavior tendencies(self-sacrificing and favoring ingroup members), and (e)Death Anxiety Questionnaire. Males and elders were found to be more collectivistic than their counterparts. Collectivism decreased as the modernization of the city of the colleges increased. Covariance structure modelling analyses revealed that "Self-Expansion→Motivation→Behavior" model and its two equivalent models("Self-Expansion←Motivation←Behavior" and "Self-Expansion←Motivation→Behavior" model) fit best with the data.